

제2179호

대표전화: 02)799-2600 / 구독: 02)799-2684



'BTS 잭팟' 방준혁 의장, 韓 부자 13위 2



이종호 소장 "日 사태 계기, 인재양성 힘 쏟아야" 23

코스피(11일) 2080.58 (+21.80P) 코스닥 677.09 (+10.19P)
환율(달러당 원화) 1173.50 (-8.10원) 금리(국고채 3년물) 1.419% (-0.019%p)

철벽 치는 日, 해외기술장벽 28% 높였다

TBT 3065건 '사상 최고'

보호무역 심화... 수입규제 거세
美 감소하고, 中·日 증가 추세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 지난해 각국이 수입을 까다롭게 하기 위해 만든 해외 기술규제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일본은 기술 규제 장벽을 1년 새 28%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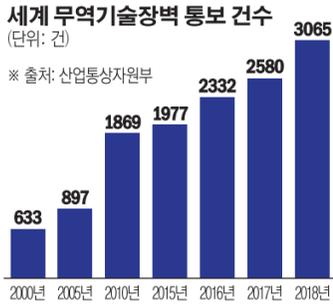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공개한 '2018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86개국에서 3065건의 무역 기술장벽 통보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 상대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등을 채택해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비관세 장벽이다.

무역기술장벽 통보 건수는 2005년 897건에서 2015년 1977건, 2017년 2580건, 2018년 3065건으로 세계 각국이 기술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반도체 소재 3개 부품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해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은 지난해 46건의 무역 기술장벽을 통보했다. 전년의 36건보다는 27.8% 늘었다. 일본의 무역 기술장벽 통보 증가 건수는 2016~2017년 4건에서 2017~2018년 10건으로 2.5배 뛰었다.

보고서는 TBT 통보문 발행 건수가 미국은 감소하고 있지만, 일본과 중국은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 무역 기술장벽의 약 83%는 개발도상국에서 이뤄졌다. 나라별로 보면 우간다 413건, 미국 276건, 케냐 173건, 브라질 156



건, 멕시코 153건 등이다. 무역기술장벽 통보 상위 10개국 중 선진국으로는 유일한 미국이 1995~2018년 통보문 발행 국가 1위를 차지했다. 다만, 2016년 441건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한국은 2016년 83건에서 지난해 64건을 신고해 16위였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이 35.1%로 가장 많았고 화학·세라믹 17.7%, 전기·전자 9.2%, 교통·안전 8.3%, 생활용품 8.1% 순이었다.

세계 각국이 이같은 무역기술장벽을 설정한 목적은 △인간의 건강 및 안전(1381건) △품질규정(672건) △기술적인 관행의 예방 및 소비자 보호(385건) △소비자 정보 제공(353건) △환경보호(352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 136개 회원국은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만3000여 건의 기술 규제를 통보했다.

보고서는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와 knowTBT포털(www.knowtbt.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엔화 빼는 日... 韓 직접투자 38% 줄었다

상반기 外人직접투자 37% ↓
日 FDI 도착액, 51.2% 급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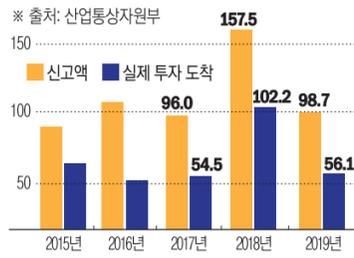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저저효과와 미·중 무역분쟁 여파 등으로 전년보다 37% 급감했다.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발(發) 투자는 38%나 줄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6월 누계 기준 FDI 신고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7.3% 감소한 98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실질적 투자 유치액으로 볼 수 있는 FDI 도착액은 전년 대비 45.2% 줄어든 56억1000만 달러였다.

정대진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FDI 감소는 유례없는 실적을 기록한 작년(신고액 157억 달러)의 저저효과와 미·중 무역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단위: 억 달러, 상반기 기준)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분쟁 등에 따른 글로벌 FDI의 하락세에 기인한다"며 "다만 2분기 실적이 1분기 실적보다 2배 이상 늘었고,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기술,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FDI 신고액은 기계장비·의료정밀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늘면서 전년보다 3.1% 늘어난 31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유럽연합(EU)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줄어 신고액(26억8000만 달러)이 전년보다 41.5% 감소했다.

일본의 FDI 신고액은 5억4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38.5% 줄었다. 도착액(3억3000만 달러)은 51.2% 급감했다.

정 정책관은 "이번 통계는 상반기 통계로 일본의 수출 규제 이슈와는 관련이 없다"며 "일본이 도쿄올림픽 준비 등 자국 투자에 집중하면서 한국에 대한 투자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일본 기업들에서는 특이한 동향이 발견되지 않았고, 몇 년 전부터 한국에 투자 의향을 밝힌 일본 기업들도 아직까지 잠잠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FDI 신고액(3억 달러)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으로 대한 투자 여력이 떨어지면서 전년보다 86.3% 줄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더위 잊을 '초복 삼계탕' 드세요" 초복을 하루 앞둔 11일 대구 중구노인복지관에서 류규하 중구청장 및 간부 공무원들이 관할 내 어르신 600여 명에게 삼계탕을 대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6회 대한민국 금융대전

핀테크 챌린지 쇼 | 기업설명회(IR) 엑스포

2019. 7. 17(수)~18(목)

서울 코엑스 C홀

핀테크·가상화폐·일자리까지... 금융의 미래를 만나다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7월 17~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C홀에서 '제6회 대한민국 금융대전'을 개최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의 주제는 '핀테크 챌린지 쇼'입니다. 금융권의 디지털 플랫폼을 경험하고 관련 기업의 혁신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집니다.

핀테크 랩 투자 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비롯해 부동산·세무·가상화폐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도 열립니다.

특히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한 시중은행 인사담당자들의 모의 면접과 한미약품·한국도지신타·에스모 등 20여 개의 상장사가 참여하는 '기업설명회(IR) 엑스포'도 진행됩니다.

독자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 대한민국 금융대전 사무국 (02)799-2688 ●사전등록: http://fexpo.etoday.co.kr/
●후원: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은행연합회 | 한국거래소 | 금융투자협회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 여신금융협회 | 저축은행중앙회 | 서민금융진흥원 | 한국핀테크산업협회

美, 이달 금리인하 확실히... 시장 환호

파월 '비둘기 발언'에 S&P 사상 첫 3000선 돌파



제품 파월(사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이달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는 시그널을 보내자 시장이 안도했다.

미국 증시에서는 S&P500지수가 10일(현지시간) 장중 한때 사상 처음으로 3000선을 돌파하는 등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세로 장을 마쳤다. 파월의 강력한 '비둘기' 신호에 11일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상승했다. 일본 증시 닛케이225지수는 전일 대비 0.5%, 우리나라 코스피지수는 1.1% 각각 올랐다.

이날 시장의 환호를 이끌어낸 건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다. 파월 의장은 이날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무역마찰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를 지적하며 금리 인하의 청신호를 쫓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그는 "전 세계의 제조업과 무역, 투자 등이 약화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중국과의 무역 마찰도 계속해서 미국 경제 전망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들은 지난달 미국의 일자리가 예상을 크게 웃돈 증가세를 보였음에도 파월 의장이 확실하게 금리인하 신호를 보낸 것에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 30~31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예상이 강해졌다.

미국 연방기금 금리 선물시장에 반영된 이달 금리인하 확률은 100%다. 0.25%포인트 낮출 것이라는 견해가 71%로 대체를 이루고 있지만, 29%는 0.50%포인트로 대폭적 금리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연준이 이날 공개한 6월 FOMC 회의록도 금리인하 견해를 뒷받침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연준의 독립성과 관련해 "법은 확실하게 나에게 4년 임기를 보장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지시가 있더라도 따르지 않겠다"고 뺨찌를 박았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반도체 불황에 재산 18% 줄어도... 이건희 '최고 부자'

〈삼성전자 회장〉

포브스가 뽑은 '올해의 한국 부자 순위 50'

수출 의존도 높은 경제 구조 영향... G2 갈등에 총액 17% ↓
61억 달러 이재용 4위에... 반토막 난 서경배 4위→6위 급락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부자들도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의 격랑을 피하진 못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상, 관련 기업 오너들의 재산 변동이 두드러졌다고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진단했다.

10일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내놓은 '2019 한국 부자 순위 50'에 따르면 한국 최고 갑부 50명의 재산은 총 1100억 달러(약 129조 원)로 1년 전의 1320억 달러에서 17% 감소했다. 이 가운데 37명은 격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재산이 감소했고, 50대 부자 순위에 들기 위한 컷 라인도 전년의 8억8000만 달러에서 8억5500만 달러로 낮아졌다.

특히 한국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의 글로벌 상황이 악화하면서 한국 주요 부자 중 세 명의 재산이 크게 줄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부자(父子)와 SK그룹 최태원 회장이다. 이 회장의 재산은

168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8.4% 감소했다. 그럼에도 이 회장은 한국 부자들 중 유일하게 재산이 100억 달러를 넘으며 1위를 지켰다.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산은 61억 달러로 전년보다 18억 달러 줄었으며, 순위도 지난해보다 한 계단 떨어진 4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삼성전자 주가가 13% 하락한 여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하이닉스의 실적 부진에 순위가 7위에서 9위로 하락했다. 그의 재산은 전년보다 40% 급감한 28억 달러였다.

그러나 50대 부자 순위에서 지난해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인물은 따로 있었다. 아모레퍼시픽의 서경배 회장이다. 아모레의 중국 매출이 곤두박질치면서 그의 재산은 지난해 76억 달러에서 올해 35억 달러로 반 토막이 났고, 순위도 4위에서 6위로 떨어졌다.

지난해 재산이 가장 많이 늘었던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재산은 74억 달러로, 3분



의 1이나 줄었다. 그럼에도 2위를 지켰다. 김정주 NXC 대표는 재산이 11.3% 감소한 63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다른 부자들이 더 부진해 순위는 지난해의 5위에서 3위로 뛰었다. 박연차 회장은 태광산업이 만드는 나이키 운동화에 대한 글로벌 수요 확대와 베트남 공장 활성화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에 힘입어 순위가 지난해 11위에서 7위(32억 달러)로 뛰었다.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도 재산이 27억 달러로 톱10 진입에 성공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정몽구 회장은 43억 달러 재산으로 순위가 작년보다 한 계단 오른 5위를 차지했다. 한편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과 중국에서 페이스 시트 마스크로 인기몰이 중인 화장품업체 GP클럽의 김경웅 대표, 문재인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장병규 위원장이 포브스 선정 한국 50대 부자 명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김상열 회장은 자회사인 호반건설의 연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재산이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장병규 위원장은

게임업체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도 맡고 있다. 그는 크래프톤 지분 약 17.7%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래프톤이 중국 텐센트 투자를 유치하면서 기업 가치가 50억 달러로 평가받은 것이 그가 50대 부호 대열에 합류한 주원인이다. LG그룹의 구광모 회장은 17억5000만 달러 재산으로 17위에 올랐다. 아버지인 구본무 전 회장의 별세로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리스트에 복귀했다고 포브스는 설명했다. 그는 41세로 한국 5대 재벌 총수 중 가장 젊다. 배준호 기자 baejh94@

BTS 후광 효과... 방준혁 넷마블 의장 '13위' 깜짝 등장

소속사 빅히트엔터 2대 주주 모바일 게임 'BTS월드' 흥행



게임 부문에서는 방 의장 외에 김정주 NXC 대표(3위)와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회장(8위),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18위), 김대일 펠어비스 대표(46위),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47위) 등이 이름을 올렸다. 포브스는 이 중에서도 방 의장에 특히 주목했다. 그가 케이팝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에 투자했다가 거부가 됐기 때문이다. 방 의장이 이끄는 넷마블은 2018년 4월 BTS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지분 약 26% 사들이면서 2대 주주에 올랐다. 방 의장과 빅히트를 설립한 방시혁 대표는 친척 관계다. 빅히트는 2014년 BTS의 첫 앨범 발매와 함께 당시 음악계를 평정하고 있던 SM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섰다. 2018년 매출은

2140억 원으로 132%나 늘었다. 순수익은 2배 증가한 500억 원을 기록했다. BTS는 콘서트마다 매진, 음악 다운로드에서도 수십억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전 세계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다. BTS의 엄청난 인기에 영감을 받은 방패밀리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10여 개의 모바일 게임 개발에 나섰다. 그 결과물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BTS월드'다. BTS월드는 이용자가 BTS의 가상 매니저가 돼 글로벌 스타로 육성하는 과정을

답은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게임은 배포한 지 14시간 만에 33개국 앱스토어에서 무료게임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연구웹사이트 스마트카르마의 애널리스트 더글라스 김은 "넷마블이 BTS의 영향력을 게임에 활용해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수익원의 저변을 넓히고 있다면서 "넷마블 게임에 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남자이고, BTS 팬은 주로 여성"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올해 초 방준혁 의장은 게임회사 넥슨 매각 입찰에 참여하며 사업 확장의 야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김서영 기자 0jung2@

h point

고객에게 주는 세상에서 가장 큰 혜택

H.Point는 하나의 ID로
현대백화점그룹 전 계열사의
온라인 서비스에 로그인 가능하고
온/오프라인 어디서든
포인트 적립과 다양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멤버십입니다.

현대백화점 | 현대홈쇼핑 | 현대아울렛 | 현대백화점 Duty Free | 한성 | 현대G&F | 현대리마트 | 현대HCN | 현대렌탈케어 | 현대그린푸드 | 현대드림투어 | 더현대닷컴 | 현대Hmall | 더한섬닷컴 | H패션몰 | 현대위크몰 | 현대어린이책미술관

“중재 나서달라”... 정부 美에 ‘전방위 외교전’

외교·통상전문가 ‘동분서주’

靑, 김현종 안보2차장 美 급파 美 행정부·의회인사 설득 나서 강경화, 폼페이오와 전화 통화 유명희, USTR 대표 내주 면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델레스 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철화를 위한 대미 전방위 외교전에 나섰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10일(현지시간) 미국을 깜짝 방문했고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로 한일 관계 등을 논의했다.

김 차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백악관 그리고 상·하원 (인사들)을 다양하게 만나 한미 간의 이슈를 논의할 게 좀 많아서 출장을 왔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미국에 중재를 요청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 이슈도 당연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 한일 갈등을 해소할 중재자 역할을 설득하기 위한 행보다. 김 차장은 이번 방미 기간에 카운터파트인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 회의(NSC) 부보좌관을 비롯한 행정부 관계자들과 의회 인사들을 만난다.

김희상 외교부 양자 경제외교 국장도 이날 워싱턴D.C.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에 일본이 취한 수출규제 조치는 전 세계 교역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 그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할 것”이라며 “일본의 조치 자체가 미국의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 미국 쪽에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11일 롤랜드 드 마셀러스 미 국무부 국제금융개발 국장, 마크 내퍼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 등과 만난다.

아울러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르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로버트 라이트 하이자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나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아프리카를 방문 중인 강 장관은 10일 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일본의 무역제한 조치가 한국 기업에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 체계를 교란시킴으로써 미국 기업은 물론 세계 무역 질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이는 한일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 및 한미일 3국 협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하며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다. 이에 폼페이오 장관은 이해를 표명했다고 전해졌다.

한국 외교·통상 전문가들이 줄줄이 대미 접촉을 통해 미국의 중재역을 요청하고 있지만 성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현재 미국은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데다 일본의 이번 경제보복이 미국과의 사전 교감이나 목인이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서다.

특히 한일 모두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한쪽 편을 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동민 기자 lawsdm@

성과 기대 어려운 韓日 첫 회동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처음으로 한일 양국이 ‘협’ 테이블에 앉는다. 과장급 회동으로 양국이 이번 만남의 성격을 높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일 통상당국은 12일 일본 도쿄에서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한일 양국은 만남의 성격부터 달리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수출 규제 조치는 양국 간 협의 사항”이라며 “이번 협의를 기초로 한 단계 더 나아가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만남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본은 이번 만남이 협의가 아니라 ‘실무급 설명회’라고 주장한다. 양국의 입장을 조율하는 자리가 아니라 일본이 자국 입장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자

오늘 도쿄서 과장급 회동 韓 “협의 향한 첫발” 기대 日 “실무급 설명회” 선긋기

리라는 의미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도 9일 “(수출 규제 조치는)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일본은) 설명하는 데는 인색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은 준비과정에서 대표단의 직급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일본 정부가 8일 당국자 간 만남을 수용한 뒤 우리 정부는 국장급 고위 간부를 대표로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일본 측은 계속 난색을 보였다. 결국 우리 정부는 한발 물러나 과장급 실무진으로 대표단을 꾸리기로 했다.

우리 측에선 전찬수 산업부 무역안보 과장이, 일본에선 이가리 가츠로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이 논의를 주도한다. 다만 과장급 이하로만 대표단을 꾸린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 국장급인 문동민 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회동에 참석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장급 만남과 과장급 만남이)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향후 국장급 논의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일본산 불화수소가 한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일본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의혹 제기식 뉴스의 양산은 국제사회의 일본에 대한 신뢰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北에 불화수소 밀수출한 나라는 일본”

하태경, 日 CISTEC 자료 공개... 20년간 대북 밀수출 30건

일본이 과거 약 20년간 핵개발·생화학 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측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배경으로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 의혹을 제기한 상황에서 일본의 밀수출이 확인된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CISTEC는 1989년 설립된 비정부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 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하는 곳이다.

하 의원이 CISTEC로부터 입수한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약 20년에 걸쳐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이 확인됐다. 반출된 물품 중에는 핵개발이나 생화학 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포함돼 있다.

CISTEC는 구체적 사례도 제시했다. 일례로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나트륨 50kg을, 2월에는 고베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수소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 50kg을 각각 탁송품으로 선적해 북한에 불법적으로 수출했다. 불화수소(에칭가스)는 화학·생물무기의 원재료와 제조 설비에 쓰일 수 있어 수출규제인 호주그룹(AG)의 규제 대상이다.

2003년 4월 직류안정화전원 3대가 일본 경제산업성의 허가 없이 태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넘어간 사례, 2004년 11월 주파수 변환기 1대가 화물 항공편을 통해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넘어간 사례도 있다.

하 의원은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일본 스스로 ‘블랙리스트 국가’를 자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본 광고는 2018 제1회 한국가스공사 홍보콘텐츠 공모전 포스터(일반) 대상 수상작(신우식)을 일부 수정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지우고 환경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한국가스공사는 환경을 위한 저탄소 청정에너지, 천연가스 보급으로 대기 질 개선에 기여하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한국가스공사

“땡큐 파월” 주식·채권·환율 ‘트리플 점프’

美 7월 금리인하 시사... 원·달러 환율 8.1원 내려 1173.5원
코스피 1.06%·코스닥 1.53% 상승... 채권 가격 일제히 올라

국내 주식과 채권, 외환시장이 일본발 약재를 잠시 털고 동반 강세를 보였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Fed) 의장이 7월 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 영향이다.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8.1원(0.69%) 떨어진 1173.5원에 거래를 마쳤다(원화가치 상승). 이는 5일 1170.4원 이후 나올 만

1170원대로 내려앉은 것이다. 하루 낙폭도 지난달 20일(14.0원, 1.19%) 이후 가장 컸다. 원·달러는 전일만 해도 장중 1182.3원까지 치솟아 6월 18일(1186.7원) 이후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었다.
주식시장에서 코스피는 21.8포인트(1.06%) 상승한 2080.58을, 코스닥은 10.19포인트(1.53%) 오른 677.09를 기



록했다. 채권시장에서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는 국고채 3년물의 경우 1.9bp(1bp=0.01%포인트) 하락한 1.419%, 국고채 10년물의 경우 1.5bp 떨어진 1.547%를 보였다. 이는 한국은행 기준금리(1.75%)보다 각각 33.1bp와 20.3bp씩 낮은 것이다.

은행권의 한 외환딜러는 “연준 의장이 하일 증언에서 금리인하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을 주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증시 강세 달러 약세라는 위험선호 분위기를 연출했다.
지난주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연준 7월 금리인하가 없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을 불식시킨 셈”이라며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인 매수에 나섰다. 대형 재료를 소화하면서 원·달러는 1170원대 초반 수준으로 내려왔다”고 말했다.
증권사의 한 채권딜러도 “파월 의장 및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7월 인하 가능성을 높이면서 채권시장도 최근 약세를 접고 강세를 보였다. 다만 증시 강세폭이 커진 데다 레벨 부담이 겹쳐 장중 강세폭은 축소됐다”고 말했다.
다음 주로 예정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 근로자위원인 이성경(오른쪽)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각각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지난 회의에서 노동계는 9570원(14.6% 인상), 경영계는 8185원(2.0% 삭감)을 제시한 바 있다. 연합뉴스

7월 초반 수출도 2.6% ‘뒷걸음’

10일까지 수출액 135.6억 달러
반도체 25%·석유제품 3% 감소
韓日 통상 분쟁으로 하반기 ‘깜깜’

하반기에도 수출 실적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35억6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39억1700만 달러)보다 2.6% 줄었다. 조업 일수 차이를 배제한 하루 평균 수출액 감소 폭은 14.0%(18억6000만 달러→16억 달러)로 더 컸다. 연간 누계 수출 실적 역시 3105억8900만 달러에서 2848억9700만 달러로 8.3% 줄었다.
한국의 수출 실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뒷걸음치고 있다. 올 초까지만 해도 정부는 상반기 부진했던 수출 실적을 하반기에 만회하는 ‘상저하고(上低下高)’를 기대했다. 하지만 7월 상승에도 수출이 감소하면서 수출 부진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의 핵심 수출품인 D램 반도체 가격은 1년 새 60% 넘게 떨어졌다. 석유 제품도 유가 하락과 중국, 대만 등의 설비 증설 여파로 지난해보다 수출액이 3.0% 감소했다. 승용차는 지난해와 비교해 수출 실적이 24.2% 개선됐다.
지역별로는 중국 수출액이 1년 전보다 13.2% 줄었다. 대중 수출은 현지 경기 둔화, 미·중 무역 전쟁 등으로 반도체, 석유 제품 등 한국산 중간재 수요가 줄면서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으로 나가는 수출액도 각각 10.5%, 20.3% 감소했다.
앞으로의 수출 전망도 불투명하다. 특히 한·일 통상 분쟁이 하반기 수출의 발목을 잡을 공간이 크다. 일본이 원자재 수출 규제를 통해 한국의 수출 주력 품목인 전자 산업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반도체 원자재가 30% 부족해지면 한국의 전기·전자 생산액이 20% 넘게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이 예고한 대로 한국을 ‘화이트 국가(전략물자 수출 우대 국가)’에서 제외해 대한(對韓) 수출 규제를 확대하면 철강이나 화학 제품 수출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주력 품목 부진은 7월에도 이어졌다.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0% 급락했다. 국제경기 하강으로 수요가 줄어든 데다 수출 단가도 내림세이기 때문이다.

여름 돌아오니... BMW 다시 화재

최근 리콜 안 받은 520d서 불나... 수리 안한 3만대 버젓이 운행

지난해 여름 BMW 차량 화재가 잇달아 발생해 사상 첫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되고 대규모 리콜을 실시했지만, 아직도 리콜을 받지 않은 차량이 약 3만 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마가 끝나면 폭염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올해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7월 BMW 화재가 잇따르자 조사에 들어갔고 BMW 측에서 EGR클러를 교체하는 1차 리콜을 결정했다. 정부는 33명으로 이뤄진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에 따라 EGR클러를 장착한 6만5763대에 대한 2차 리콜을 실시했다. 12월 최종 조사결과에서 흡기다기관도 화재 원인에 포함해 추가로 17만2404대에 대한 리콜을 했다.
11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으로 EGR클러 교체 대상 17만2404대 가운데 아직도 교체하지 않은 차량은 8438대(시정률 95.1%), 흡기다기관을 교체하지 않은 차량은 2만958대(87.8%)에 달한다.
최근 리콜을 받지 않은 차량의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오전 11시 19분께 대전~당진고속도로 대전 방향 유성분기점 근처를 지나던 BMW 520d 차량에서 화재

〈사진〉가 발생했다. BMW 측은 “문제 차종은 지난해 7월 1차 리콜 대상 10만6511대 중의 1대로 BMW에서 총 20여차례 서신과 유선통화 등으로 리콜조치를 권고했으나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3월 24일에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북동에서 리콜을 받지 않은 BMW X6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자동차안전연구원과 BMW 측의 합동조사 결과 EGR클러 누수가 확인됐다.
문제는 폭염이 시작되면 추가로 화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연구원 측은 “EGR클러 및 흡기다기관 교체 리콜조치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MW 측은 “리콜을 받지 않고 운행 중인 차에 대해서 조속한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형 기자 junior@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지계차 자격증 있으면 취직 잘된다

지난해 워크넷 구인광고 분석
4건 중 1건 국가자격증 우대
2위 건축기사, 3위 한식조리사

취업 잘되는 국가기술자격증 10선

1위 지계차운전기능사	6위 전기산업기사
2위 건축기사	7위 전기기사
3위 한식조리기사	8위 직업상담사2급
4위 전기기사	9위 응집기사
5위 토목기사	10위 정보처리기사

* 출처: 워크넷

기업들이 사람을 뽑을 때 가장 많이 찾는 국가기술자격은 지계차운전기능사였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워크넷의 구인광고 약 118만 건을 분석한 결과, 자격과 관련된 구인 건수는 28만1675건(23.8%)으로 4건 중에 1건 정도는 채용할 때 자격을 요구하거나 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계차운전기능사, 건축기사 등 국가 기술자격을 요구하는 구인 공고는 8만 4893건으로 전체의 7.2%, 요양보호사와 자동차운전면허 등의 기타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는 19만6782건으로

16.6%였다.
구인 공고에서 제시한 임금도 국가 기술자격을 요구할 때는 월평균 225만 9000원으로 자격증이 없을 때보다 25만 8000원이 많았고, 기타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와 비교해도 21만 3000원이 많았다.
구인 공고가 많은 국가기술자격은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의 모든 업종에서 필요로 하는 지계차운전기능사가 1

위에 올랐다. 이어 건축기사가 2위, 한식조리기사는 3위였다.
전기기사 4위, 전기산업기사 6위, 전기기사 7위, 전기공사산업기사 12위, 전기공사기사 18위로 취업할 때 전기 분야 자격증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서비스 분야의 자격은 직업상담사2급이 8위, 컴퓨터활용능력2급이 15위로 구인 공고에서 자주 언급됐다.
구인 공고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자격증 1위는 자동차운전면허다. 운전면허는 6만 8500건의 구인 공고가 있었다. 이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보육교사 순이었다.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는 약 349만 명으로 전년보다 약 7만 명이 늘었고, 취득자는 약 69만 명으로 약 1만 명이 증가했다. 세종=박은명 기자 pepe@

“기업, 경기 나쁠 때 채용 축소보단 해고 먼저”

한은 “취업난 금융위기 후 고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취업과 실업이 고착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경기가 부진할 경우 채용을 줄이기보다는 우선 해고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은행 무형연구팀 오삼일 과장 등이 발표한 ‘노동이동(worker flows) 분석 고용상태 전환율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실직자가 구직활동을 통해 한 달 후 취업할 확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0~2009년) 28.2%에서 금융위기 이후(2010~2018년) 25.6%로 떨어졌다.

취업자가 실직할 확률은 같은 기간 1.0%에서 0.8%로 낮아졌다.
전체 기간(2000~2018년) 중 고용상태 전환율을 보면 취업자 중 0.9%(22만 명)는 익월에 실업자로, 2.8%(67만 명)는 육아와 가사 등을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바뀌었다.
반면, 실업자 중 31.6%(28만 명)는 익월에 취업자로, 16.9%(15만 명)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했다. 또, 비경제활동인구 중 5.5%(84만 명)는 익월에 취업자로, 1.8%(28만 명)는 실업자로 바뀌었다.

이 같은 노동이동(실업→취업 31.6%, 취업→실업 0.9%)은 프랑스(각각 7.7%, 0.7%)나 독일(각각 6.0%, 0.5%), 이탈리아(각각 4.3%, 0.4%) 등 유럽에 비해서는 활발한 편이나, 미국(각각 56.5%, 3.6%)보다는 경직적이다.
장기시계(1986~2018년)에서 실업률 변동을 분석한 결과 실직률(취업→실업)은 실업률 변동의 55%를 설명한 반면, 취직률(실업→취업)은 12%에 그쳤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전(1986~1997년) 34%를 설명하던 실직률은 외환위기 이후(2009~2018년) 43%로 높아진 반면, 취직률은 같은 기간 29%에서 25%로 떨어졌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국민연금 보험료를 17%까지 올리고 68세 수령”

정부 '2057년 기금 고갈' 국민연금 제도개선 공론화 나서 보건사회부 "보험료를 17.1% 넘으면 낸 돈보다 적게 받아"

현재 9.0%인 국민연금보험료를 단계적으로 17.0%까지 인상하되, 수급 개시연령도 68세까지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연 구기관에서 제시됐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 보다 많은 연금을 받으려면 보험료를 17.1%보다 낮게 설정해야 하는데, 이것만 으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 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보 건사회연구' 여름호에 이 같은 내용의 '시 물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국민연금의 제도 적 지속가능성 고찰(김용하 순천향대 교 수)' 보고서를 게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하면 2057년에 기금이 고갈되고, 이 때부터 당해 수입 보험료로 연금 지출을 충당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한다면 필요 보험료율이 33.2%에 이르게 된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일찍이 보험료를 올린 상태에서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2016년 사망률을 고정했을 때 보험료율이 17.1%를 넘어서면 평균수 득자 기준 수익비가 1배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라 늘어 나는 수명을 고려하더라도 보험료율이 22.2%를 넘으면 가입자는 낸 보험료보다 적은 연금을 받게 된다.

결국 국민연금이 가입자에 이익이 되는 제도가 되려면 보험료율이 17.1%보다 낮 아야 한다. 단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2배 가까이 인상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 고, 이조차 부과방식 보험료율에 크게 못 미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선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보고서는 소득대체율(40%)을 현 행대로 유지하되, 보험료를 17.0%로 향 후 20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장기적으 로 사망률이 낮아지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2033년 65세에서 2038년 66세, 2043년 67세, 2048년 68세 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본 정책 대안을 시물레이션한 결과 적립기금 고갈이 2102년에 발생하 고, 2100년까지 연금수리균형보험료를 하 한에서 제도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으로 분 석됐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與 “日 수출규제 대응 3000억 추경에 野 협조해야” 野 “국내용 정치 이벤트에 기업인들 들러리 세워”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일본의 수출 규 제 대응을 위해 최대 3000억 원을 추가 경정예산안(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국회 대정부 질 문에서 밝힌 1200억 원보다 큰 규모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긴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 중심으로 최 대 3000억 원 수준의 예산을 추경 심사 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주요 내용은 3 대 품목 및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 으로 기술 개발, 상용화, 양산 단계 지 원 등을 위한 예산”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추경을 통한 지원 못지않 게 중요한 것이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 이라며 “기술 개발 실증 및 성능 테스

트, 공동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국내에서 개발된 소재·부품이 생산에 신속하게 투입되기 위해서는 대기업 등 기업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 대변인은 “정부가 제시 한 6조7000억 원에 3000억 원이 별도 추경으로 제시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 명했다.

정부의 이번 추경 규모는 올해 4월 국 회에 제출된 6조7000억 원에 추가예산 3000억 원을 더한 7조 원이 된다.

조 의장은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 을 수 없다”며 “정부와 기업은 물론 범 사회적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야당이 추 가 발굴하는 추가 사업에 대해선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추경에 함께 반영하겠 다”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초당적으로 협력 하고 싶어도 제대로 된 대책이 없다며 ‘보여 주기식 이벤트’에만 치중하고 있 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 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리 협력하고 싶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협력 할 일조차 내놓고 있지를 못하니 답답 하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기업인에 게 발원 시간을 3분씩 쪼가며 단순 대책 만 반복하고 (청와대)간담회는 사진 촬영 이벤트로 끝나 버렸다”며 “기업인들 을 국내용 정치 이벤트에 들러리 세워 지 마라”고 날을 세웠다.

조현정 기자 jhj@



한중일 “따오기 함께 보호”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한중일 3국 협력 20주년 기념 ‘2019 따오기 국제포럼’에서 이종현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왼쪽부터), 한정우 창녕군수, 장 전귀 중국 한중시 부시장, 미우라 모토히로 일본 사도시 시장이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전북 다음주, 서울 이달 말 자사고 취소여부 최종 결정 난다

국회 사회분야 대정부질문

이낙연(사진) 국무총리는 11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해 “교육부가 법령에 합치하는지의 여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 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사고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해 사회 안정성이 깨지고 갈등이 발생했다”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교육부 청문과 동의 절차가 남아있 다. 저도 동의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부산 해운대고는 평가 기간 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 까지, 전주 상산고는 평가 기간이 2014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였는 데, 각각 평가 기준이 2018년 12월에 통보 됐다”며 “자사고를 가급적 죽이는 쪽으로 평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총리 는 “자사고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가, 입시기관으로 전락하고 고교 서열화를 조



장하는 부작용은 없는가를 보는 평가”라고 반박하며 “이번 평가는 자사고를 획일적으 로 없애겠다는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이 아 니라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해 “전북·경기·부산은 청 문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안 에 교육부에 동의 요청이 올 것으로 예상 한다”며 “경기·전북·부산지역은 다음 주 말, 서울지역은 이달 말께 각각 최종 결정 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KBIZ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

대한민국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공제가 언제나 뒤에서 응원 하겠습니다

절세혜택
납입부금에 대해 최대 연 5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복지·가입장려금
상해보험(2년), 경영자문, 휴양시설 등 복지서비스 이용과 지자체 가입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공제금은 법률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사업 실패 시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복리이자
별도 사업비 차감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 적용되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대한민국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세법에 따라 부동자산(대입소득과 법인기업의 대표자 중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Google play / 애플 앱스토어에서 노란우산공제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 본 상품은 가까운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우체국, 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중소기업중앙회와 KBIZ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KBIZ 중소기업중앙회**

〈호르무즈 해협〉

美, 동맹국에 중동 유조선 호위 'SOS'... 난처한 韓·日

韓·日, 수출 규제 갈등 맞물려 중재 역할 가능한 美 요청 눈치

다국적 함대 협력 고민하는 日 자위대법·우방국 이란 '걸림돌'

'규제 논의' 韓, 방미 부담 가중 공식 참여 요청 땀 거부 힘들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이란의 위협이 계속되는 글로벌 핵심 석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위한 다국적 함대 결성을 추진한다.

이에 한국과 일본은 당장 복잡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일본에 의한 대한민국 첨단 소재 수출 규제로 양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줘야 점수를 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선택권은 일본에 먼저 주어진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트럼프 정부가 중동 해역을 항행하는 민간 선박을 호위하기 위해 동맹국의 자발적인 연합 결성을 추진하면서 일본 정부에 가장 먼저 협력을 타진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참여를 요구, 향후 수 주 안에 참가국을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신문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 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대행, 조지 프 던포드 합참의장은 전날 중동 선박 호위 연합 결성 방안의 세부내용을 정리했다. 던포드 합참의장은 "여러 나라와 조정에 들어간 상태"라며 "수 주 안에 어느 나라가 우리의 구상을 지지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원유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중동 의존도가 높다. 지난해 일본의 중동 석유 의존도는 88%에 달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연간 총 1700척에 달하며, 그 중 약 500척이 유조선이다. 해운사들은 위험 해역에 들어

서면 속도를 최고로 높이거나 감시를 늘리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의 요구에 선뜻 응할 수 없다. 자위대법 때문이다. 2015년 성립된 안보법에서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의 우방국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이 '존립위기 사태'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하면 행사할 수 있다. 국민의 생명, 재산 등이 근본적으로 뒤집히는 명백한 위협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인 제약이 따른다.

자위대 해외 파견 이유를 규정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를 적용해 미군을 후방 지원할 수 있지만 이를 인정하기 어

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중요 영향 사태'는 방지하면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 우려가 있는 경우를 뜻한다. 또 연합군에 참가하면 전통적 우방인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할 우려가 있다.

일본 자위대는 2009년부터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해적으로부터 민간 선박을 보호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다만 이 활동의 근간이 되는 법률 대상은 어디까지나 '해적 행위'로 국한, 미국 측이 언급한 연합 활동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이에 노가미 고타로 일본 관방 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국적 연합 참여 가능성에 대해 "미일 간에 긴밀하게 의사소통

을 하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 언급은 미루겠다"고 말하는데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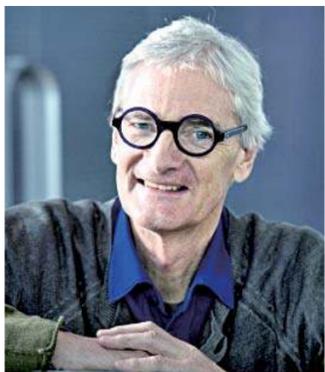
한국도 난처한 처지이긴 마찬가지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한일 갈등 문제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외중에 오히려 부담스러운 숙제를 떠안게 됐기 때문.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폼페이오 국무 장관에게 전화통화로 우려를 전달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다국적 함대 참여를 공식 요청하면 거부하기가 힘들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대이란 추가 제재를 발표하면서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이 스스로 유조선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다이슨, 싱가포르에 눌러앉나 '640억' 펠트하우스 구입 논란

브렉시트 지지 불구 '나몰라라' 英 정치권 "위선자" 한목소리

무선청소기와 헤어 드라이어로 유명한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의 창업자이자 억만장자인 제임스 다이슨이 싱가포르에서 초호화 펠트하우스를 구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포르에 전기차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문제는 다이슨이 공개적으로 브렉시트를 지지하고선 정작 자신은 회사를 영국 밖으로 이전한 것은 물론 현지에 초호화 아파트까지 사들였다는 것이다. 다이슨이 분사 이전 결정을 내렸을 때, '영국의 상징' 중 하나였던 회사가 모국을 버린 것이라는 인상이 강했다. 특히 다이슨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기사 작위까지 받은 터여서 배신감은 더욱 컸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다이슨을 '위선자'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다이슨은 당시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최고법률책임자(CFO)만이 영국을 떠나는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결국 자신도 싱가포르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다.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이 17%로 19%인 영국보다 낮다. 반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우려해 재산세는 높다. 특히 외국인이 현지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최대 20%의 세금을 내야한다.

김서영 기자 0jung2@

'IT 공룡' 보호 나선 美... 佛 디지털세 정조준

통상법 301조 근거 조사 개시 점점 못 찾을 땐 무역분쟁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구글과 애플 등 자국 IT 대기업 보호에 나섰다.

유럽 주요국들이 인터넷 경제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고려했다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디지털세를 추진하는 프랑스를 첫 타깃으로 삼았다고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통상법 301조에 따라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통상법 301조는 중국과의 무역 분쟁 근거가 되는 법으로, 외국의 불공정한 관행에 미국 정부가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한다. 양자 협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추가 관세 등 제재에 들어갈 수 있다. 조사 기간은 최장 1년이다. 미국은 디지털세를 둘러싼 국제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를 먼저 시행하려는



국가들을 견제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상원에서의 투표를 앞두고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국은 11일 프랑스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서비스 세금이 미국 기업을 불공정하게 타깃으로 삼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것이 차별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것인지 미국의 상거래를 제한하는지 등

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전 세계에서 연매출이 7억 5000만 유로(약 9900억 원) 이상이면 자국 내에서 2500만 유로 이상을 벌어들이는 IT 기업들에 대해 이들이 프랑스에서 창출한 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비슷한 디지털 과세 도입을 보류했기 때문에 프랑스가 단독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닷컴 등 실리콘밸리 대기업의 본거지여서 디지털세에 민감하다. 공화당 소속의 척 그래스리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공동 성명에서 "프랑스와 기타 유럽 국가들이 추진하는 디지털세는 확실히 보호무역주의적이며 불공정하게 미국 기업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일자리를 대가로 하며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0년 최종 합의의 목표로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중국-홍콩 갈등에 휘말린 '포카리스웨트' '중편향' 광고 중단에 홍콩서 품질 사태... 중국선 불매 운동

한국에도 잘 알려진 음료수 포카리스웨트가 중국과 홍콩 간 갈등에 휘말리게 됐다.

포카리스웨트를 제조·판매하는 일본 오츠카홀딩스 홍콩 법인이 현지 유력 TV방송국 TVB에 내보내고 있는 CM(광고)을 중단한다고 하자 홍콩과 중국에서 상반된 반응이 격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10일(현지시간) 허프포스트가 보도했다.

오츠카가 TVB에 내보내던 CM을 중단한 건 TVB가 홍콩에서 최근 벌어진 대규모 시위 보도에 대해 "중국 편향적"이었다는 비판이 확산했기 때문이다. 홍콩 네티

즌 사이에서는 편향 보도를 한 TVB에 대해 광고를 취소하도록 호소하는 운동까지 벌어졌다. 이 여파로 오츠카홀딩스가 광고 중단 결정을 내리자 홍콩 현지에서는 포카리스웨트의 인기가 순식간에 차츰되면서 곳곳에서 품질 사태까지 일어났다.

시위 주최 단체 중 한 곳은 전날 트위터에 "포카리스웨트를 홍콩 시위 공식 지정 식품으로 정했다"며 "일부 홍콩 시민은 친정부 채널인 TVB에서 광고를 철회하기로 한 브랜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자 매장에서 모든 포카리스웨트 제품을 씹어버리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오츠카 홍콩 법인은 "의견에 감사한다"며 "우리는 지난주 방송광고를 철회하기로 했다. 다른 TVB 플랫폼에서도 광고를 내려줄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광고 중단에는 2주가 걸린다"는 답글을 올렸다.

반대로 홍콩 시위를 아니꼽게 보는 중국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 등이 이 소식을 전하자 웨이보 등에서는 "홍콩과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기업과 제품은 중국시장에서 좋은 결실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글이 쏟아졌고 불매 선언이 잇따랐다.

환구시보는 이날 일본 기업이 잘못된 스탠스를 취함에 따라 중국 본토에서 엄격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사람이기업이다 기업은행이 동반자다



미세먼지 없는 늘 푸른 하늘 만들기

- 대중교통 이용하기
- 친환경 자동차와 친해지기
- 나이 든 경유차와 작별하기

환경 보호 다짐과 실천 서약 하나가
깨끗한 환경과 다양한 금융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푸른 대한민국을 꿈꾸는

IBK 늘푸른하늘통장

개인 고객

환경개선 '다짐' 등록, 환경개선 실천(대중교통 이용·친환경차량 이용·노후경유차 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中 택 1) 시 금리 우대 또는 금융 수수료 면제

🎁 신규 가입자 경품 추첨 이벤트

적립식 월 10만 원 이상 또는 거치식 5백만 원 이상 신규 가입자 대상 (19.11월 말까지)
1등 : 스타일러(1명) | 2등 : 공기청정기(5명) | 3등 : GS25 모바일 상품권(1천명)

기업 고객

환경개선 '서약' 등록, 환경개선 실천(친환경차량 이용·노후경유차 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환경관련 대출 보유 中 택 1) 시 금리 우대

🎁 IBK 기업 Clean Up+ 이벤트

중이 절감을 위해 비대면채널을 통한 거치식 상품 (1년제) 가입 시 IBK Clean Up+ 응원 금리 연 0.10%p 추가 제공 (19.12월 말까지)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19-3404호(2019.07.10) 게시기한:2020.07.09·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중소기업금융채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 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은행 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IBK기업은행☎ 080-800-0119)·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윤리위반 신고센터☎ 02-729-7490 또는 e-mail:ibkethics@ibk.co.kr)



(소비자 보호 총괄 책임자)

금융사 CEO, 고객 보호 의무 강화... CCO 겸직 못한다

금융위, 모범규준 개정 추진

앞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책임은 최고경영자(CEO)가 진다. 민원이 많은 데도 독립된 소비자 보호 총괄 책임자(CCO)를 두지 않는 회사에는 패널티가 주어진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협의회 의장은 CEO가 맡아야 한다. 상품출시 전 영향 분석부터 광고 심의 결과까지 CEO가 직접 챙겨 소비자 보호에 관한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소비자 보호 수준이 양호한 금융

소비자 보호 협의회 의장 맡아
상품 출시~심의까지 총괄 책임

CCO 겸직 땀 종합등급 1단계 ↓
대출조건 변경 정기적 공지해야

회사는 지금처럼 CCO가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 평가 결과가 '양호' 이상이거나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을 받은 곳 등이다. 임원급의 전담 CCO를 선임한 회사도 제외된다.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금융소비자 보호 협의회'의 업무 기능도 강화된다. 소비자 보호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상품 출시 전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주요 내용

- 1 금융회사 내부관리 개선
 - CEO 역할 강화
 - 금융 소비자 보호 협의회 기능 강화
 - CCO 겸직 제한
 - CCO·소비자 보호 총괄부서 권한 강화
- 2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 제도 도입
- 3 금융소비자 만족도 평가 도입
- 4 금융회사의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출처: 금융위원회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분석해야 한다. 분쟁 소지가 가장 많은 상품 설명서 역시 소비자가 읽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 그 결과는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한다.

CCO 겸직도 엄격히 제한된다. 일정 자



실태평가 시 종합 등급이 1단계 하향조정되는 패널티를 받아야 한다.

금융소비자 만족도 평가도 도입된다. 장애인과 고령층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는지, 상품 판매 설명은 얼마나 잘했는지, 직원 전문성을 얼마나 있는지 등을 소비자가 직접 평가해 점수를 매긴다.

마지막으로 대출 거래조건이 변경되거나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정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 범위와 방법은 금융소비자 보호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스스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하나금융그룹은 11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에 1호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개원했다. (왼쪽부터) 장하진 하나금융그룹 사회공헌위원회 위원, 이병훈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박승 하나금융그룹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임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사진제공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1호 개원

하나금융은 광주광역시 동구에 공동직장 어린이집 1호를 개원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개원식에는 박승 하나금융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정태 회장, 함영주 부회장,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이병훈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박치영 모아건설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어린이집은 수준 높은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어려운 보육 여건에 놓인 중소기업 재직 임직원 자녀가 입소할 수 있도록 한 첫 번째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이다.

은행과 관공서, 기업 등이 밀집한 금남로에 위치해 등·하원 접근성도 높았다. 또

내부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 '예술의 도시'를 테마로 꾸몄으며, 인터랙티브 월드 설치해 날씨,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 회장은 "호남과 하나금융이 진정한 상생을 이루기를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건립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칼퇴근 독려' 금감원의 속사정

금융 인사이트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외
오늘 통상임금 소송 판결 따라
시간외 수당 1.5배 인상 우려



금융감독원이 이달부터 오후 7시 이후 야근자 파악에 나섰다.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52시간제에 발맞추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야근을 해도 수당 지급이 어려운 속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인적자원개발실과 총무국은 이달부터 오후 7시 이후 야근자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52시간제 실시 이전엔 시간외 수당 인상이라는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총무국은 12일 나올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달라지면 시간외수당이 1.5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위에서 받은 올해 예산은 이미 정해져있기 때문에 야근 수당이 올라가면 지급 빈도를 전보다 줄일 수밖에 없다.

2017년 금감원 직원 1833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결과가 12일 나올 예정이다. 원고 승소 시 임금 채권시효 3년에 따라 지난 3년간 받지 못한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기존 12개월 월급 기준으로 산정하던 시간외수당을 상여금까지 통상임금 범주에 포함해 18개월치 월급을 기준으로 시간외수당이 재산정된다.

칼퇴근 독려를 강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올해 금감원 전체 예산은 지난해보다 2% 삭감되고, 인건비

인상률도 2017년 7%에서 올해 0.8%로 내려갔다는 등 조그라든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간외 근무를 올린 직원 외에 남아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며 "근로시간 한도에 따라 '정시퇴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계도 기간'을 갖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워라벨 문화 확산 속도는 앞으로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현 원장 취임 후 주말 근무는 크게 줄었다는 평이다. 매달 마지막 주에는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실시하고 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0분 연장 근무를 하고 금요일엔 2시간 빠른 내시에 퇴근하는 제도다. 부서마다 매월 한번, 팀마다 일주일에 한번 반드시 정시 퇴근해야 하는 가정의날 제도도 정착시켰다.

올해 1분기 탄력근로제 신청자는 총 790명(시차출퇴근형 152명, 근무시간선택형 638명)으로 2016년 92명, 2017년 280명, 2018년 938명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오후 6시면 중앙방송국에서 흘러나오는 '퇴근하고 싶다'라는 퇴근송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지역 혁신창업 적극 지원"

금융위원회는 11일 전남지역 청년창업 희망 콘서트를 개최하고 지역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날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금융위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관계 기관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손병두(사진) 금융위 부위원장은 혁신성장 금융생태계 조성방안을 소개하고 지역 혁신 창업 관련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손 위원장은 "여러 의견을 앞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에서도 혁신 창업과 지속 성장이 확산하도록 지원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혁신성장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 단계와 성장 단계, 회수·재도전 단계로 나눠 맞춤형 자금 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6월 은행 가계대출 5.4兆 증가

신규 입주자금 수요 늘어나
"증가 규모 예년보다 못 미쳐"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자금 수요가 꾸준한데다 신규 아파트 입주 관련 자금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중 정책모기지론을 포함한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에 비해 5조4000억 원 증가한 848조9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5조4000억 원 증가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6월을 기준으로 보면 대출 급증기인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증가세 6조5000억 원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증가세 3조 원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은 3조9000억 원 늘어난 626조4000억 원을 나타냈다. 이 역시 작

년 12월 4조9000억 원 증가 이래 최대 증가세다.

실제 같은기간 서울 및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각각 7000호와 4만5000호에 달했다. 이는 각각 올 2월(8000호, 4만6000호) 이후 가장 많았다.

마이네스트통장과 일반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1조5000억 원 확대된 221조4000억 원을 보였다. 이는 어린이날 등 연휴로 소비성 자금수요가 많았던 5월(2조1000억 원 증가) 대비 확대폭이 축소된 것이다.

이상호 한은 시장총괄팀 과장은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예년 증가 규모에는 미치지 못했다"면서도 "(가계대출이 추세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다. 판단이 어렵다. 다만 상반기중 (대출 증가세가) 둔화했던 것에서 둔화속도가 느려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가 kimnh21c@

우리銀, 통신사 거래정보만 있어도 대출 'OK'

'우리 비상금 대출' 출시

우리은행은 소득 정보가 없거나 금융거래 이력이 없어 대출이 어려웠던 고객을 위해 '우리 비상금 대출'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대출의 고객 신용평가는 통신 3사(SKT, KT, LGU+)에서 제공하는 △휴대전화 기기 정보 △요금납부 내역 △소액결제 내역 등을 바탕으로 신용평가사에서 산정한 '통신사 신용등급'을 활용한다.

대출한도는 통신사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이며 1년 만기 마이네스트통장

(한도 대출)으로만 취급된다. 통신사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0.50%포인트까지 우대된다. 이날 기준 최저 금리는 3.84%다.

대출대상은 우리은행 입출금 계좌를 보유하고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통신 3사에서 이용 중인 개인으로, 고객은 소득정보나 직장정보 입력 없이 우리은행 간편뱅킹 앱 '위비뱅크'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통신사 및 전자상거래 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비대면 신용대출에 대한 신용평가 모형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산 기자 jinsan@

독점 노선 없애니...반값 항공권 댔다

이스타, 오늘 '인천~상하이' 50% 저렴하게 취항
울란바토르 노선, 아시아나 투입 후 10만원 싸져
하반기 독점 노선 더 풀려...하늘길 '경쟁의 미학'

항공사의 황금알로 여겨지는 독점 노선들이 사라지고 있다. 덕분에 항공권 가격도 내려가면서 여행객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인천-몽골 울란바토르 노선의 가격을 기존 최저가 47만 원에서 37만 원까지 20%가량 내렸다. 대한항공이 단독으로 운항하던 몽골행 노선에 아시아나항공이 경쟁에 참여하면서 할인된 운임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몽골 노선은 그동안 대한항공의 효자 노릇을 토포했다. 대한항공이 25년 넘게 독점으로 운항하며 수익을 쟁했던 노선이다. 평균 탑승률이 70~80%를 유지했고 성수기 탑승률은 90%를 웃돌았다. 그러나 단독으로 운항하다 보니 특가 이벤트는 보기 드물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승객들에게 돌아갔다. 성수기 몽골행 노선의 가격

은 100만 원 수준으로 치솟기도 했다.

아시아나항공이 2월 2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천-울란바토르 주 3회 운수권을 따낸 후 9일 신규 취항을 하면서 본격적인 고객잡기 경쟁이 시작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진입, 몽골발 수요 감소에 따라 기존보다 할인된 운임을 적용하는 등 시장 환경변화에 맞게 가격 정책을 구사하며 대응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사(FSC)가 독차지하던 노선의 가격도 떨어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양대 국적사가 경쟁하던 인천-상하이 노선에 저비용항공사 이스타항공이 합류했기 때문이다. 이스타항공은 5월 2일 국토부의 중국 운수권 배분 과정에서 LCC 가운데 유일하게 인천-상하이 노선을 배분받았다.

12일부터 취항하는 이 노선의 티켓 가격

노선	기존 독점 항공사	신규 투입 항공사	취항 날짜
인천-울란바토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7월 9일
인천-상하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7월 12일
인천-하얼빈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제주항공	예정
인천-선양	대한항공	티웨이항공	예정
인천-청두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예정
인천-난징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예정
제주-상하이	진에어	이스타항공	예정
대구-베이징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예정
부산-엔지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예정

은 대형항공사들보다 최대 50%가량 저렴하다. 이스타항공의 인천-상하이 노선 편도 항공권 가격은 11만5200원이다. 같은 날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권은 22만 원이다. 절반 가량 저렴한 셈이다. 물론 기내식과 수하물 서비스의 차이가 있지만 추가 서비스를 신청하더라도 20~30% 더 저렴하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국토부에 운임신고를 할 때 대형항공사 대비 20~40% 저렴하게 책정해서

신고했기 때문에 고객들이 더 싼 가격에 여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에는 독점 노선이 더 풀리면서 가격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이 독점 운항하던 인천-하얼빈 노선에는 대한항공과 제주항공이 하반기 취항을 앞두고 있다. 특히 LCC인 제주항공이 취항하면서 항공권 가격은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티웨이항공도 제주항공이 단독

으로 운항하던 대구-베이징 노선에 취항해 낮은 가격으로 승부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단독 노선에 새로 투입되는 항공사들이 생기면서 가격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들은 더 합리적인 가격에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송 기자 kisso@g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현대자동차가 11일 경기 용인시 원고대로 카명에서 소형 SUV '베뉴(VEINUE)' 출시 행사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현대차 SUV 베뉴, 경차 값이네

밀레니얼 겨냥 1470만원부터

현대자동차가 엔트리급 SUV 베뉴를 출시했다. 기본형(1470만 원)을 기준으로 소형차는 물론 경차와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해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차는 11일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더 카핑'에서 SUV 베뉴의 공식 출시 행사를 열고 본격 판매에 돌입했다.

베뉴는 현대차의 최신 디자인 스타일을 감각적으로 담아낸 SUV로 세련되면서도 실용적인 삶을 추구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혼라이프'를 겨냥했다.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에 태어나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에 능숙한 세대를

말한다. '혼라이프'는 현대차가 새롭게 정의한 용어로 물리적인 1인 가구에 머무르지 않고 혼밥과 혼술 등 개인의 취향과 만족을 위한 혼자만의 시간을 중시하는 사회 트렌드를 말한다. 베뉴의 최대 강점은 나만의 차로 꾸밀 수 있는 다양한 전용 커스터마이징 상품이라는 점이다.

자신만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적외선 무릎 워머 등의 특이성(TUIX) 상품을 제공하며 디자인 사양을 강화한 플럭스(FLUX) 모델을 운영한다. 베뉴의 판매가격은 △스마트 1473만원(M/T, 수동 변속기), 1620만 원(IVT, 무단변속기) △모던 1799만 원 △플럭스(FLUX) 2111만 원이다. 유창욱 기자 woogj@

日 추가 규제 시 '비메모리 EUV' 타깃 예상

"EUV용 '블랭크 마스크' 일본 호야가 독점 생산"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추가 규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시스템반도체 1위를 위해 내세운 첨단 극자외선(EUV) 기술공정이 타깃이다.

이미 규제가 확정된 EUV용 포토리지스트(PR)는 일본 외에 대체 가능한 업체가 없고, 추가 규제 가능성이 제기된 블랭크 마스크 또한 EUV용 제품을 일본 업체가 독점하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본이 추가로 규제할 가능성이 큰 반도체 관련 품목은 집적회로(IC), 전력반도체(PMIC), 리소그래피 장비, 이온주입기, 웨이퍼, 블랭크 마스크 등이다.

모두 일본 수출 규제의 주요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수출무역관리령'의 통

제대상품목(1~15항)에 포함된 제품들이다. 이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품목은 블랭크 마스크다. 블랭크(blank) 마스크는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의 원재료다.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하며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일본 업체인 호야의 제품 품질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내 호야 제품 비중도 60%에 달한다.

NH투자증권 도현우 연구원은 "EUV용 블랭크 마스크는 일본 호야가 독점 생산 중"이라며 "국내 에스앤에스텍 등의 블랭크 마스크는 글로벌 업체 대비 기술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말했다.

웨이퍼 역시 일본을 대체하기 어려운 품목이다. 도현우 연구원은 "웨이퍼의 경우, 일본 섬코나 신에츠의 기술력이 가장 뛰어나다"며 "국내 반도체 업체도 이들 제품을 가장 선호한다"고 말했다. 수출 규제 품목에 포함된 EUV용 포토

리지스트 역시 일본 JSR, 신에츠 등이 공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비전 2030'을 선포하며 시스템 반도체 강화의 일환으로 EUV 라인의 생산 확대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 4월 7나노 EUV 양산에 성공, 현재는 소규모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소재 공급이 끊긴다면, 내년 1월 본격 가동될 예정인 화성의 EUV 전용 생산라인의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찾은 EUV 건설현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거 짓는 돈이 인천공항 3개 짓는 비용"이라며 투자 규모를 강조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핵심성장 산업 중 하나가 시스템 반도체고, 이를 이끄는 기술이 EUV"라며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대한민국 반도체의 미래가 멈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KCC 유리 사업부문, KCG로 분할 독립

KCC, 신소재 화학 집중

KCC가 유리·흙씨·상재 사업부문을 분할해 신규 법인을 설립한다.

KCC는 11일 이사회를 열고 단순 인적 분할을 통한 신설 법인(주KCG)의 설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신설 법인 KCG는 유리 사업 부문, 흙씨

씨인테리어 사업 부문, 상재 사업 부문 등 세 개의 사업 부문을 축으로 2020년 1월 1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KCC는 실리콘, 도로, 소재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신소재 화학 기업으로 거듭나고, KCG는 유리, 인테리어 중심의 종합 유리 사업자로 도약하게 된다.

존속 회사인 KCC와 신설 회사인 KCG

의 분할 비율은 순자산 비율인 약 0.84대 0.16이다. KCG는 자본금 83억5000만 원, 자산 1조500억 원에 이르는 중견 기업이다.

매출 규모 또한 KCC 매출을 기준으로 유리와 상재 및 인테리어 부문을 합쳐 약 7400억 원 규모다.

KCC 관계자는 "이번 기업 분할은 장기적 성장 추구, 주주 가치 극대화, 책임 경영 체제 확립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SK 직영주유소 15곳서 태양광 발전·전기차 충전

SK에너지가 11일 SK주유소와 내트릭 하우스 등 석유 유통 물류 거점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SK에너지는 이날 한국에너지공단, 에스트라텍과 친환경 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SK주유소와 내트릭하우스에 태양광 발전 설비와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MOU 체결 행사에는 조경목 SK에너지 사장과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문찬중 에스트라텍 대표 등이 참석했다.

SK에너지는 수도권 소재 3개소를 비롯한 15개 직영주유소를 1차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대상으로 선정했다. 내트릭하우스는 이달 착공 예정인 부산 신항 내트릭하우스 지점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추가 2개소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착공할 예정이다.

변효선 기자 hsbun@

삼성중, 올 수주 목표 42% 달성 파나마 유조선 2척 1500억 계약

삼성중공업이 파나마 지역 선사로부터 수에즈막스(S-Max)급 원유운반선 2척을 1467억 원에 수주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선박은 2021년 3월 인도 예정이다.

수에즈막스 규모의 운반선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유조선 선을 의미한다.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질



소산화물 저감장치(SCR) 및 선박평형수 처리장치(BWTS) 등을 탑재해 친환경 규제에 적합하다. 또한 선주사의 운항 조건에 최적화된 선형 및 추진기 등 연료 절

감기술들을 대거 적용해 운항 효율성이 높다.

특히 삼성중공업이 국내 업계 최초로 독자 개발한 차세대 스마트십 시스템 '에스베슬(SVESSEL)'이 탑재돼 △연료 소모량 절감 가능한 최적 운항(항로) 계획 수립 △실시간 장비상태 감시 및 고장 진단 △육상 원격관제 기능 등을 제공한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을 포함해 올해 총 16척, 33억 달러의 수주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올해 수주 목표 78억 달러의 42%에 해당한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장비 생산부터 자동화까지...두산 '물류 서비스왕' 선포

지게차 점유율 1위 발판으로
사후관리·SW 아우르는
계열사 간 사업 시너지 포부
2Q 영업이익 700억대 복귀 전망



10일 두산 산업차량 인천공장에서 열린 '종합 물류서비스 선두주자 도약' 선포식에서 동현수(왼쪽 7번째) 두산 부회장, 광상철(왼쪽 8번째) 산업차량BG장, 김환성(왼쪽 6번째) 두산로지스틱스솔루션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과 고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두산

국내 지게차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인 ㈜두산이 지게차 제조를 넘어 다운스트림 서비스(렌탈·중고 거래·정비 등을 포괄하는 서비스)와 물류 자동화 솔루션까지 아우르는 '종합 물류서비스 선두주자'로의 도약을 선포했다.

㈜두산은 10일 인천공장에서 동현수(㈜두산 부회장)를 비롯한 임직원과 고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 물류서비스 선두주자 도약'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두산의 종합 물류서비스 사업은 △지게차 제조 △다운스트림 서비스 △물류 자동화 솔루션 등 세 영역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두산이 국내에서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제조' 영역이 종합 물류서비스 사업의 근간을 이룬다.

다. ㈜두산은 이날 전동식 지게차, 팔레트 트럭, 리치 트럭, 스택커 등 창고 물류 장비 풀 라인업 18종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하고, 고객 체험 시간을 가졌다.

광상철(㈜두산 산업차량BG장)은 "신제품, 신사업, 신규 고객의 비중을 늘려 2025년까지 매출을 현재의 두 배 이상인 2조 원 대로 늘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 산업차량 BG의 연간 매출액은 8696억 원을 기록했다.

두산로지피아(Doosan Logipia)로 대

표되는 '다운스트림' 서비스도 종합 물류 서비스 사업의 한 축을 이루게 된다.

2018년 설립한 두산로지피아는 지게차의 부품 조달부터 지게차 임대, 중고 수리(Refurbish·리퍼비시)와 중고 매매, 사후 관리까지 포괄하는 다운스트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두산은 5월 출범한 두산로지스틱스솔루션(Doosan Logistics Solutions)과의 시너지를 통해 종합 물류 서비스를 완성한다. 물류 시스템 통합사업

자(SI·System Integrator)인 두산로지스틱스솔루션은 물류 전 과정에 필요한 자동화 설비와 이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합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동현수(㈜두산 부회장)는 "지게차 제조, 다운스트림 서비스, 물류 자동화 솔루션을 통합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지게차 제조 국내 1위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종합 물류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엔가이드

에 따르면 두산은 2분기 매출액 4조8956억 원 영업이익의 399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분기부터 자체사업 실적 개선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 자체사업 영업이익은 4개 분기만에 700억 원대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며 "카메라 모듈 고도화, 무선 이어폰 확산 등으로 전자 실적이 개선되고, 북미시장 출시효과로 산업차량도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Wenger®

Swiss Made

Watches

A Swiss Company since 1893

3 Year Warranty
Seaforce Chrono
01.0643.111

wenger.co.kr

KOI COMPANY Co.,Ltd. 02)6403-2112

현대모비스가 8세대 쏘나타를 기반으로 러시아 최대 포털 사업자 '안덱스(Yandex)'와 공동개발한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진제공 현대모비스

모비스 '자율주행 로보택시' 베일 벗었다

러 최대 포털 '안덱스' 공동 개발 하반기 모스크바 시내 시범주행

현대모비스가 러시아 최대 포털 사업자 '안덱스(Yandex)'와 공동으로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개발했다.

11일 모비스가 공개한 로보택시는 모비스와 안덱스가 진행해온 공동개발 프로젝트의 첫 번째 성과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 3월 말 '딥러닝 기반의 자율주행 플랫폼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모비스와 안덱스가 공동개발한 로보택시는 하반기 러시아 모스크바 시내에서 시범 주행에 나선다. 로보택시는 로봇과 택시의 합성어로 자율주행차와 택시 서비스를 결합한 것을 말한다. 시범 서비스로 요금을 받지 않으며 만일에 대비해 사람이 타고 있지만 운전을 하지는 않는다.

양사는 올 하반기까지 자율주행 플랫폼 로보택시를 100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시작으로 러시아 전역에 로보택시를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모비스와 안덱스의 자율주행 플랫폼 공동개발은 완성도 높은 모빌리티 서비스를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기 위한 전략적 제휴였다. 모비스는 자동차 핵심부품과 자율주행 요소기술을 모두 내재화하고 있고, 안덱스는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제공했다.

올 초 MOU 체결 이후, 양사는 신형 쏘나타를 기반으로 공동 개발을 진행한지 6주 만에 완전 자율주행차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현대모비스는 빠른 기술 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술 연구진을 러시아로 파견, 현지에서 플랫폼 개발을 지원했다.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양 사는 앞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덱스 러시아 인터넷 검색시장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최대 포털 사업자로, 모빌리티 서비스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하는 부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김준형 기자 junior@

한화시스템, 에어택시 시장 진출 美 K4 에어로노틱스 300억 투자

한화시스템이 미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는 에어택시 시장에 진출한다. 한화시스템은 이를 위해 선도 PAV(Personal Air Vehicle) 기업인 미국의 K4 에어로노틱스(K4 Aeronautics)에 2500만 달러(약 295억원)를 투자한다고 11일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K4 에어로노틱스는 고효율 저소음의 PAV를 구현할 다수의 특허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전기 추진식 PAV 제품 개발에 기반이 될 기술 라이선스도 보유하고 있어 시장진입을 위한 주요 요구 조건을 만족할 업체로 평가 받고 있다.

이번 투자를 통해 한화시스템은 K4 에어로노틱스의 일정 지분을 확보하고, 미국 시장을 공략할 PAV 개발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 변효선 기자 hsbun@

KB 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에서 바꾸면 출발부터 즐겁다”



전세계 어디를 가든 환전은 역시 KB

Let's KB 환전 페스티벌



EVENT 1. 월드클래스급 최대 90% 환율우대

Liv(리브)로 환전 시 최대 90% 환율우대
USD 90% / JPY·EUR 80% / 기프트콘 및 모바일 지급 포함
KB네트워크환전, KB서울역환전센터, 외화 ATM(USD), 멀티 외화 ATM 이용 시 최대 80% 환율 우대



EVENT 2. 전국 무료 외화 배달 서비스

KB-POST 외화 배달 서비스 이용 시
신청금액 상관없이 배달 수수료 면제
이벤트 기간: 2019. 6. 1(토) ~ 8. 31(토) / 배달 가능 지역: 전국(일부 도서산간지역 제외)



EVENT 3. 제휴할인 및 적립금 혜택

씨타·두타·SM면세점 및 MK감자유학
마이리얼트립·포켓와이파이에서 할인 및 적립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 이벤트존 참조

* 본 이벤트는 KB국민은행의 사정으로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19-1046-1호 (2019.06.28) 광고물 유효기한 2019.08.31까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美보다 수수료 100배 폭리

美거래소 코인베이스 이더리움 전송 수수료 0.0001이더 책정
국내 거래소 대다수 0.01리더... 비트코인 수수료도 수십배 차
“비현실적인 수수료 책정 해소 필요... 거래 수수료도 비교해야”

국내 가상화폐(암호화폐·코인) 거래소들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출금 수수료가 해외 거래소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더리움의 경우 미국 거래소와 100배 이상까지 차이가 나면서, 국내 사용자들에게 수수료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11일 국내 5개 가상화폐 거래소에 따르면 다수의 거래소가 이더리움의 전송 수수료로 0.01이더(약 3400원·표참고)로 책정한 반면,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이더리움의 전송 수수료는 0.0001이더(약 34원)로 책정했다. 국내 거래소의 이더리움 전송 수수료가 코인베이스보다 100배 높게 책정된 것이다.

비트코인 전송 수수료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선 0.0005비트코인(약 7000원)에서 0.002비트코인(2만8000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돼 있다. 반면 코인베이스의 전송수수료는 0.00009094비트코인(약 1213원)으로 책정됐다.

코인베이스는 이더리움 전송수수료 내역에서 네트워크에서 필요한 부분만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코인베이스가 가져가는 별도의 전송 중개 수수료는 없었다.

결론적으로 코인베이스의 출금 수수료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평균적으로 책정한 수수료의 차이가 막진인 셈이다. 예컨대 이더리움의 경우 한번 전송할 때마다 3366원(수수료 0.001ETH 일 때)을

국적	거래소명	비트코인	원화 환산	이더리움	원화 환산
미국	코인베이스	0.00009094	1213원	0.0001	34원
몰타	바이낸스	0.002	2만8000원	0.02	6800원
한국	업비트	0.0005	7000원	0.01	3400원
한국	빗썸	0.001	1만4000원	0.01	3400원
한국	코빗	0.001	1만4000원	0.01	3400원
한국	코인원	0.0015	2만1000원	0.01	3400원
한국	고팍스	0.002	2만8000원	0.015	5100원

※출처: 각 사

벌어들인다고 볼 수 있다.

일각에선 네트워크의 사용량에 따라 적정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기술의 차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포화상태 일 때 수수료를 너무 낮게 책정할 경우 전송 시간에 지연이 생길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적의 수수료 설정이 필요한데, 코인베이스의 경우 이와 관련한 기술이나 노하우가 다른 가상

화폐 거래소보다 축적돼 있을 것이란 해석이다. 이 밖에도 수수료의 경우 출금 수수료 하나만 놓고 비교하기보단 거래소별로 거래 수수료와 입출금 수수료를 전략적으로 책정한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주요 5개 가상화폐 거래소 중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입출금 수수료가 가장 높게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고팍스 관계자는 “거래 수수료와 입출금 수수료 중 어떤 부분에서 사용자들에게 혜택을 줄지 전략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거래 수수료는 다른 거래소보다 낮게 가져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미국의 대표적인 거래소와의 입출금 수수료 차이가 너무 크다는 문제는 해소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정보 제공사이트 관계자는 “각 거래소가 가진 자원과 비용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입출금 수수료를 책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국내 거래소가 해외 거래소보다 전송 수수료를 비현실적으로 많이 받는 것은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로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택시동승 중개·공유주방 서비스 허용된다

과기부, ICT 규제 샌드박스 4차 심의위

택시동승 앱 ‘반반택시’ 공유주방 ‘위콧’ 실증특례 지정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QR코드 기반 O2O결제도 통과
가상화폐 활용한 해외 송금은 다음 심의회로 결정 연기

공유주방과 택시 합승중개 등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사업 아이템들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반면 가상화폐를 활용한 해외 송금 등은 보류됐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8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신청건에 대한 실증특례나 임시허가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안건은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코나투스)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심플프로젝트 컴퍼니)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대한케이بل)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인스타페이) △블록체인 기반(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 서비스(모인) △택시 앱 미터기(티머니, 리라소프트, SK텔레콤 각각) 등이었다.

우선 과기부는 위콧으로 대표되는 공유주방 사업모델을 개발한 심플프로젝트 컴퍼니의 실증 특례 신청을 통과시켰다. 공유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편의점, 마트, 온

라인 마켓, 지역 식당 등에서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위콧의 사직지점에서 만든 음식으로 한정되지만 공유주방 사업의 활로를 열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는 게 회 사측 설명이다.

기존 공유주방이 기업간 영업을 하려면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했다.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으려면 작업장, 창고 등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으로 영업 허가를 받은 위콧 사업장은 이전까지 공유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소비자에게만 팔 수 있었다.

1개 공간 내 복수의 사업자 등록이 허용되는 것도 식음료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1개 생산 공간 내에서는 1개 사업자만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었다.

3차 심의위에서 보류됐던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서비스는 이번에 서울시내 택시에 한정해 실증특례를 부여 받았다. 승객 한명이 앱에서 택시 동승을 요청하면,

이동 경로가 70% 이상 같은 다른 승객 한명과 연결된 뒤 택시를 불러주는 서비스다. 승객들(1인+1인)은 앱을 통해 배정된 앞 또는 뒷좌석에 탄다. 요금은 절반보다 약간 많은 금액을, 승객이 각각 지불한다. 해당 서비스는 서울시 택시에 한해,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운영된다. 심의위는 해당 서비스를 심야시간에 택시를 잡기 어려운 지역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구 등이다.

‘발전소 또는 가정집의 태양광 설비’의 발전량 데이터를 LTE(4G)망을 활용해 고객에게 모바일 또는 웹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도 임시허가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LTE망이 아닌 SKT LoRa망으로만 전송이 가능했었다.

모인이 신청한 가상통화를 매개로 한 해외송금서비스는 다음 심의회로 결정이 연기됐다. 심의위원회는 가상화폐 매개 해외 송금 허용 관련해 서비스로 인한 기대효과 및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심의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외국환거래법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과기부 등이 다방면에서 연관된 만큼 향후 유관 부처가 함께 제도 정비를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김우람 기자 hura@·이지민 기자 aaaa3463@



대교는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연차알림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대교

교육업계에 부는 ‘워라밸’ 바람

에스티유니타스 ‘DIY 출퇴근제도’ 근무 일정 자유롭게
대교 ‘복장자유화’·NE능률 ‘시간제 휴가’ 등 잇단 도입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로 전국 직장에서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직장을 구할 때 필수 요건인 ‘일과 개인의 삶의 균형’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그 중에서도 ‘꿈의 직장’을 표방하며 직원 복지에 속도를 내고 있는 교육업체들이 눈길을 모은다. 업계 최초로 ‘주4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에듀윌을 시작으로 ‘일할 맛 나는 직장을 만들겠다’는 대교, 에스티유니타스, 웅진씽크빅 등 주요 업체들이 주목받고 있다.

11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에스티유니타스는 ‘DIY 출퇴근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가구 등의 물건을 직접 만드는 ‘DIY’를 차용해 개인별 업무 특성 및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자신의 출·퇴근시간을 주단위로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근무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공통 근무시간만 준수하면, 나머지 시간은 주 40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출·퇴근이 가능하다. 입사 후 만 3년 근무하면 2주간의 유급휴가를 주고, 여성 직원의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경우, 3월 한 달간 유급휴가를 지원한다. 여행 계획서를 토대로 격월마다 1개 팀을 선발하고, 선발된 팀에게는 항공료와 숙박, 여행자보험을 포함해 1인당 200만 원의 여행비도 지원한다.

대교는 자신의 업무와 일정에 따라

복장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복장 자유화를 실시하고, 자기계발을 위한 사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 사내 인트라넷에 익명으로 소통할 수 있는 ‘조직문화 게시판’을 신설했으며,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연차알림제’, 즐겁게 일하는 문화를 위한 ‘플레이 대교’ 등을 실시하고 있다.

NE능률은 ‘시간제 휴가’를 도입했다. 기존 반일(4시간), 전일(8시간) 사용 가능했던 휴가를 1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조기 퇴근, 휴식 등 직원들의 개인 일정에 따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좋은책신사고는 관공서, 은행, 병원, 어린이집, 학교 등 짧은 시간이 걸리는 용무가 생기면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는 ‘반반차 제도’를 도입했다. 업무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시간대를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11시,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 사내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휴넷은 주어진 휴가 일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무제한 자율휴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정년도 100세까지 보장해주는 제도도 시행 중이다. 시원스쿨도 3년 근속하면 5일 유급휴가를 주고, 휴가비 100만 원 지원한다. 생일 같은 가족기념일에는 1시간 조기 퇴근이 가능하고, 월요일 출근 시간은 10시로 늦췄다.

이재훈 기자 yes@

SKT, 철도 통신속도 10배 높인다

SK텔레콤이 10배 빠른 철도 통신을 만든다. SK텔레콤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군장산단 인입철도 외 4개 사업 고밀도파장분할다중화장치 구매설치’ 사업 구축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SK텔레콤이 ㈜우리넷 등과 컨소시엄을 만들어 이번에 수주한 남부 고밀도 파장 분할 다중화장치(이하 DWDM : Dense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는 광주, 대전, 대구, 부산 등 수도권 외 남부지역 철도 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계약 기간은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총 계약 금액은 약 68억 원 규모다.

DWDM전송 장비는 빛의 파장에 신호를 실어 전송하는 장비다. 철도통신무선망인 LTE-R, 열차간 통신인 KTCS부터 보안을 위한 CCTV와 열차표 예매 등 전산으로 이뤄지는 통신까지 모두 DWDM망을 통해 이뤄져 철도 통신에서 중요한 인프라로 꼽힌다.

이번 사업은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 및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에 따른 ‘철도 광전송망 구축계획’의 일환이다.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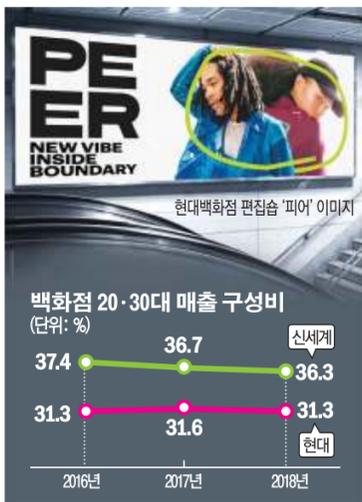
철도시설공단과 사업 구축계약
달리는 KTX서 100Gbps 통신

SK텔레콤 컨소시엄이 수주한 ‘원주~강릉 파장분할다중화장치 구매설치’에 이어 서울, 대전, 부산 등에 대용량 기간망(남부링)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SK텔레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전국 DWDM 망 구축 사업자로서 전국 주요 역사에 도입해 망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유선망 기준 10Gbps의 속도로 이뤄지던 통신이 100Gbps로 10배 빨라져 300km이상으로 달리는 KTX에서도 안전하고 원활한 열차간 통신이 가능해졌다. 김범근 기자 nova@

백화점 '2030 마케팅' 키워드는 SNS 인사이트

현대백, 자체 편집숍 '피어' 온라인 인기 브랜드 총집합 롯데·신세계도 팝업매장 '미래 고객' 젊은 층 이끌어



백화점이 젊은 고객을 겨냥한 콘텐츠 경쟁에 나섰다. 오프라인 유통채널이 온라인에 밀려 실적 부진에 허덕이는 가운데 올해 주요 백화점 3사의 1분기 실적도 다소 주춤했다. 이에 백화점은 온라인과 SNS에서 화제가 된 상품을 매장에 들이는 팝업스토어를 기획하거나 온라인 인기 브랜드를 한데 모은 편집숍을 선보이는 등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층을 유치하기 위한 상품을 앞다퉀 선보이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밀레니얼 세대(1980년 이후 생), Z세대(1990년대 중반 이후 생)로 대표되는 젊은 고객을 끌기 위해 신촌점 유플렉스 지하 2층에 자체 편집숍 '피어'를 다음달 15일 오픈한다고 11일 밝혔다. 피어는 온라인 채널에서 인기 있는 패션 및 식품 브랜드를 모은 편집숍으로, 백화점 한 층 전체를 '플래그십스토어(브랜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체형 매장)' 형태로 만든 것이 특징이다. 백화점에서 자체 운영하는 편집숍 중 가장 큰 규모로, 매장에는 40여 개의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베이커리, 독특한 인테리어로 화제가 된 서울 성수동의 '벨로워' 카페가 함께 입점한다.

현대백화점 측은 "기존 백화점에 입점하지 않았지만 온라인 등의 채널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핫한' 브랜드를 중심으로 편집숍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젊은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트렌드에 맞춰 빠르게 콘텐츠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롯데백화점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4일까지 SNS에서 인기를 끄는 '마약배개', '마약매트리스', '퓨어썬사위키' 등이 색 상품들을 모아 판매하는 '바디럽(BODYLUV)' 팝업스토어를 열었다. 롯데백화점 측은 "SNS에서 떠오르는 상품을 직접 경험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을 모아 판매하는 팝업 스토어를 열었다"며 "바디럽 팝업 스토어처럼 젊은층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이색 상품을 지속해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세계백화점도 5월 젊은층을 겨냥한

'청춘마켓'을 선보였다. 청춘마켓에서는 기존 백화점에서 만나기 어려웠던 SNS 파워 인플루언서들의 제품 등 최신 유행 아이템과 브랜드 40여 가지를 판매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다양한 SNS를 통해 청춘마켓의 오픈을 알리며 젊은 세대 유치를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SNS 인기 브랜드를 소개하는 청춘마켓을 통해 20·30대 젊은 층의 취향에 맞는 브랜드를 소개하고 그동안 백화점을 찾지 않던 고객들까지 사로잡았다"며 "청춘마켓을 운영했던 5월 10·13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의 매출은 전년 대비 28.3%나 늘었다"고 말했다.

백화점에서 20·30대 고객층의 매출 비중은 30%를 다소 웃돌며 전체 매출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한다. 신세계백화점의 20·30대 매출은 2016년 37.4%에서 지난해 36.3%, 현대백화점의 경우 20·30대 매출이 2017년 31.6%에서 지난해 31.3%로 큰 변동이 없다. 백화점 입장에서는 20·30대 고객이 현재 고객인 동시에 미래 고객이기도 한 만큼 이들이 온라인 쇼핑 위주에서 벗어나 백화점 매장으로 발걸음이 향할 수 있도록 콘텐츠 경쟁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백화점의 한 관계자는 "백화점의 경쟁력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해서 선보이는 데 있다"며 "20·30대 미래고객은 특히 트렌드에 민감하기 때문에 백화점은 이들이 관심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고 기획해 선보이며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미선 기자 only@

찰칵 찍으면 유사상품이 짝르르 유통업계 '사진 검색' 힘준다

젊은 세대는 텍스트보다 영상과 사진으로 정보를 얻는 것을 선호한다. 특히 1020세대의 경우 포털보다 유튜브를 통한 검색이 익숙하다.

SSG닷컴 '쓱렌즈' 강화 GS샵 이미지 검색 도입



GS샵 이미지 검색 서비스

유통업계가 미래 소비를 주도할 1020세대의 선호도를 반영한 모바일 검색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모바일 쇼핑 시장 규모는 69조원으로 전체 온라인 채널에서 61.8%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커졌다. 모바일 쇼핑 시장은 지난해 111조 7000억 원에서 2021년 124조 9000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모바일 쇼핑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1020세대가 선호하는 사진 검색 기능을 도입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SSG닷컴은 사진 한 장으로 500만 개의 상품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SSG닷컴은 기존 이미지 상품 검색 서비스인 '쓱렌즈'에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기술을 적용해 한층 정교해진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OCR은 직접 촬영한 사진과 같은 '이미지'에서 글자로 쓰인 부분을 추출해 이를 도대로 제품을 식별하는 기술이다. 옷, 신발, 가방 등 사진을 분석해 상품 검색을 했던 기존 '쓱렌즈'에 OCR 기술을 적용해 상품에 적힌 문자까지 검색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쓱렌즈로 검색할 수 있는 상품의 카테고리도 기존 패션제품군 중심에서 가구, 유아동, 반려동물용품까지 확대했다.

홈쇼핑 가운데 모바일 쇼핑 비중이 가장 높은 GS샵도 이미지 검색 서비스를 선보였다. GS샵 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되는 이미지 검색은 모바일 앱 검색 창에서 카메라 아이콘을 누른 뒤 직접 사진을 촬영하거나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이미지의 색상, 패턴, 디자인 등을 유형별로 파악해 최대 100개의 상품을 자동으로 찾아준다. GS샵은 현재 이미지 검색을 패션 의류를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후 잡화, 가구, 인테리어 등 전 상품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는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분석 기술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추천해주는 형태다. 싱가포르 소재의 글로벌 스타트업인 Visenze와 협업을 통해 GS샵에 적용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밀레니얼 세대, Z세대 같은 젊은 층은 중장년층과 달리 텍스트보다는 사진이나 영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과 모바일 쇼핑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사진 한 장만으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희희 기자 yhh1209@



산지에서 바로 온 햅감자 이마트가 11일부터 17일까지 국내산 햅감자를 정상가의 절반 이하 수준인 100g당 100원에 판매한다. 기존 정상가인 100g당 298원과 비교했을 때 3분의 1 수준이다. 이마트는 사전 예약을 통해 생산 물량을 매입했고, 산지에서 수확한 대로 마대에 담아 매장에 입점했다. 사진제공 이마트

하이트진로음료 '非생수 확대' 효과 톡톡

'블랙보리·토닉워터' 인기에 상반기 음료 실적 37% 성장

하이트진로음료는 올해 상반기 총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생수에 집중된 기존 사업 포트폴리오를 음료(비생수) 사업으로까지 확대하면서 음료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37% 성장했다. 그 결과, 전체 매출액에서 음료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34%까지 늘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이 같은 실적 호조의 여세를 몰아 하반기 전체 매출 목표를 상반기 대비 30% 이상으로 재설정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신제품 개발과 설비 증설에 과감한 투자를 진행해 히트상품을 발굴하고 생수 사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올 상반기 흑자 경영에 돌입했다.

천연 지하 암반수 '석수'와 검정보리 차 음료 '블랙보리', 각테일 믹서류인 '진로믹서 토닉워터'가 하이트진로음료의 성장을 이끄는 삼두마차다.

국내 대표 장수 먹는샘물 브랜드 '석수'는 상반기 페트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 증가한 1억 3000만 병(500ml 기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세종공장 페트라

인 증설로 생산능력을 확충한 효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음료업계 '대세 음료'로 떠오른 '블랙보리'도 최근 확장제품인 '블랙보리 라이트'를 출시한 가운데 지난 6월 말까지 340ml 기준 누적 판매량 6400만 병을 기록하며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진하고 풍부한 맛의 '블랙보리 오리지날'과 맑고 깔끔한 맛의 '블랙보리 라이트'로 제품 라인업을 강화해 보리차 시장은 물론 국내 차음료 전체 시장의 성장을 계속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진로믹서 토닉워터'도 소주와 토닉워터를 섞어 마시는 일명 '썸토닉' 인기로 힘입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0% 성장하며 호실적을 견인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도수가 낮고 맛있는 술을 즐기는 주류 문화와 혼술·홀술 트렌드에 따라 지난해 11월 '진로믹서 토닉워터'의 확장제품으로 토닉워터 갈라만시와 애플 2종을 출시했다.

하이트진로음료 마케팅 관계자는 "하이 트제로, 새벽햇게 등 기존 음료 브랜드 리뉴얼 등 하반기 마케팅 전략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문턱 낮추는 특급호텔... '가성비 메뉴' 쟁긴다

10만 원 이하 코스·주류 무제한 행사 등 비수기 매출 확대

'고급화'의 대명사 호텔이 '가성비'를 앞세운 메뉴를 선보이며 '다중화'에 나섰다. 최근 호텔은 그간 호텔에서 찾기 어려웠던 10만 원 이하의 코스 요리나 주류 무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반 식당장과 비슷한 수준의 가격대로 호텔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프로모션을 앞다퉀 선보이고 있다. 이같은 가성비 메뉴는 대개 평일에 제공되는데, 호텔들이 고객 저변을 확대해 평일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파크 하얏트 서울은 프리미엄 뮤직 바 '더 팀버 하우스(The Timber House)'에서 다음 달까지 1인 6만9000원에 해산물 코스 요리를 맛볼 수 있는 '해삼 내장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더 팀버 하우스를 상징하는 하우스 사케, 화이트 와인 과 레드 와인, 일본 산토리 프리미엄 몰츠



파크 하얏트 서울의 프리미엄 뮤직 바 '더 팀버 하우스'에서는 해산물 코스 요리를 맛볼 수 있는 '해삼 내장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생맥주 등의 주류를 무제한 제공한다.

밀레니엄 서울 힐튼의 바 '오크룸'은 다양한 BBQ 뷔페와 주류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가성비 끝판왕 'BBQ 헤피아

워'를 10월 초까지 선보인다. BBQ 메뉴를 비롯해 다양한 스낵, 수제 생맥주, 하우스 와인 등 주류까지 5만4000원에 즐길 수 있는 초특가 상품이다.

그랜드 엠베서더 서울은 수제 맥주와 와인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프로모션을 기획했다. 피자, 소시지, 치킨을 비롯해 과일, 샐러드, 디저트류 등 20여 가지 메뉴로 구성된 세미 뷔페와 함께 수제 맥주, 레드 및 화이트 와인, 스파클링 와인을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가격은 3만9000원이며, 여성 고객은 특별 할인 혜택으로 3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

가성비 메뉴는 평일에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호텔 업계 관계자는 "호텔은 주말 장사라고 할 만큼 주말에 비해 평일은 비수기다. 저렴한 메뉴를 평일에 선보여 좀 더 많은 고객이 평일에도 호텔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백미선 기자 only@

日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시스웍, 국산화 육성 수혜株 주목

시스웍이 정부의 부품·소재 국산화 육성 정책 관련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관련 수출 규제 이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자금 투입까지 고려하고 있어 육성 정책 관련 자금 집행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다.

업계 요구는 강하다. 국내 반도체 소재·장비업체가 지난해부터 지속해서 정부에 '성능평가 팹(테스트베드)'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온 가운데, 정부 계획(반도체 소재·장비 국산화를 위한 연 1조 원 투입)이 클린룸, 웨이퍼 공정 장비, 분석 측정 장비 등의 투자로 이어질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11일 "당사의 시스템은 국내 대기업 고객사로부터 검증받았다"며 "정부에서 관련 투자가 진행된다면 납품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부가 실제 투자할지 여부와 투자 규모를 알지 못한다"며 "앞으로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시스웍은 클린룸용 모터, 제어기, 소프트웨어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라인에 필요한 토탈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다. 2018년 기준 현재 제어시스템 부문은 국내 48%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BLDC 모터분야는 1위다.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등이다.

특히 시스웍은 무선 클린룸 제어시스템, BLDC 정밀 모터 등 차세대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소재·장비 국산화 개발에 필요한 기업 중 한 곳으로 꼽히고 있다.

주목할 점은 차세대 부품 소재 적용을 실험할 테스트베드다. 정부가 지원해야 할



테스트베드는 국내 반도체 소재·장비업체가 개발한 기술을 실제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등의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지 '성능을 점검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공장'을 의미한다.

일본 업체의 경우, 자체 테스트베드를 갖추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내 반도체 기업은 이를 구축할 여력이 없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기술을 검증할 장소가 없는 셈이다. 실질적인 지원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국내 IT 고객사들의 요구 수준을 검증할 수 있는 장소다. 정부가 최신·최첨단 테스트베드를 새로이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테스트베드 구축은 대기업과 연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스웍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클린룸제어시스템을 구동할 수 있는 모터, 제어기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생산의 원스톱(ONE STOP) 서비스를 고객사에 제공하고 있다.

업계에선 정부가 직접 나서거나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싶어 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연합체를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고종민 기자 kjm@

오전 10시에 제공하는 투자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Money 10에 게재됐습니다

신텍, 수주 끊기고 M&A도 '난항'

상장폐지 이후

작년 매출 711억... 43% 급감
대손상각 인식 탓 판관비 늘어
수주 잔고 6억 남아 경영 '최악'
3자배정 유증 등 공개매각 추진

상장 폐지 1년이 지난 신텍의 신규수주는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회생절차가 개시됐으며 인가전 인수·합병도 난항을 겪고 있다. 애타게 기다렸던 남부발전 공사대금이 유입됐지만, 회사 상황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신텍의 매각 주간사인 신우회계법인인 공개 M&A를 진행 중이다. 매각 방법은 3자 배정 유상증자 및 회사채 인수 등을 통한 일괄매각과 본사 건물, 공장 분할매각 방식 등이다. 인수희망서 접수는 다음 달 2일까지다.

상장폐지 이후 지난 1년 신텍의 경영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개별



신텍타워. 사진제공 신텍

지 2000억 원 수준에 달했던 수주잔고는 급감하면서 3월 말 기준 25억 원까지 줄었다. 주요 계약도 대부분 완료된 상태로, 현재 1건의 계약, 수주잔고 6억여 원만 남아 있는 상태다.

신텍은 지난해 6월 112억 원의 부채를 갚지 못해 최종부도 처리됐다. 같은 해 10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으로 현대건설, GS건설과 함께 남부발전으로부터 약 2000억 원의 공사대금을 받았다. 이중 신텍의 몫은 18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몇 달 사이에 희비가 엇갈린 셈이다.

이 지금은 수주가 끊긴 상황에서 정상화까지 버틸 마지막 구명줄이다. 다만 실적이 크게 악화된 상태에서 M&A가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부도 당시 최대주주이자 대표였던 A 씨는 다른 혐의로 구속됐고 각자 대표였던 B 씨는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회사에서 손을 뗐다. 회생절차 취소를 요구했던 채권자 C 씨 역시 별개의 혐의로 구속됐다. 회사에 주주 권리를 요구하던 소액주주의 움직임도 소강상태다.

박기영 기자 pgy@

텔콘RF계약 최대주주 '엠마우스' 나스닥 상장

텔콘RF계약 최대주주 엠마우스라이프 사이언스(이하 엠마우스)가 18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다.

11일 텔콘RF계약에 따르면 엠마우스는 9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나스닥 상장사인 마인드 애널리틱스(이하 마인드)와 합병에 대한 안건이 승인됐다.

이번 주주총회 승인으로 엠마우스와 마인드는 16일까지 합병을 완료하고 나스닥 상장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계획이다. 합병회사는 엠마우스로 상호를 바꾸고 'EMMA'로 18일 상장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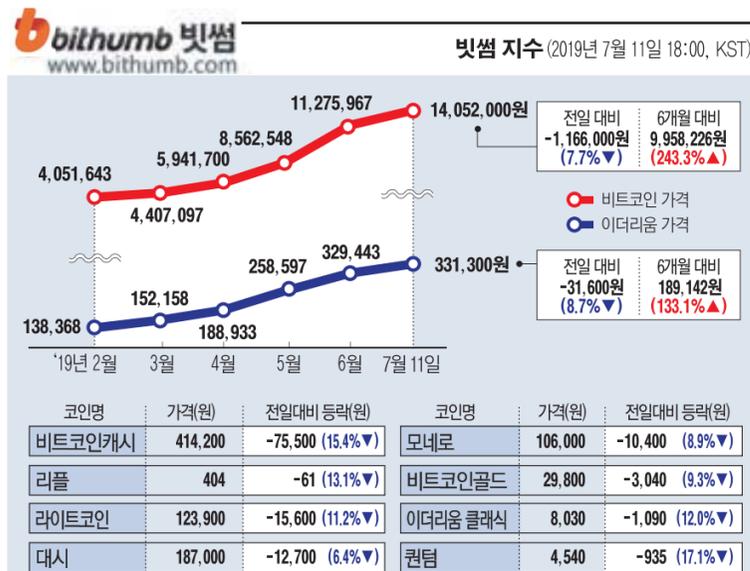
신약 개발 전문기업 엠마우스는 세계 최초로 소아 환자에게 처방이 가능한 겸상적

혈구질환(SCD) 치료제 엔다리(Endari)를 개발해 시판 중이다.

현재 텔콘RF계약은 엠마우스 발행주식의 11%를 보유하고 있다. 합병이 완료되면 텔콘RF계약은 합병회사 지분 10.3%를 보유하게 된다.

텔콘RF계약 관계자는 "나스닥 상장으로 보유 중인 엠마우스 지분 가치의 재평가와 함께 유동성까지 확보하게 됐다"며 "엠마우스와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로 보유 지분 가치 상승뿐만 아니라 원료 공급으로 인한 매출 증가 등 다양한 부분에서도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종민 기자 kjm@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MUSICAL
메피스토
MEFISTO
2019.5.25~7.28 광림아트센터 | BBCH홀
남우현 권 노태현 신성우 김법래 분종원 김수용 최성원 정상은 박우연 황하나 권민재(선우) 란지(임민지) 나영

〈대전·대구·광주〉

“나 떨고있니”... ‘대·대·광’ 분양가 규제 타깃될까 좌불안석

상한제 적용기준 강화되면 대전 사정권 들어
청약경쟁률로 따지면 대구·광주도 타깃
주택법 시행령 어떻게 바뀔지 관심 집중

정부가 확대 시행하려고 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 제도의 타깃 지역은 당연히 서울이다. 서울 집값은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재건축 단지와 같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라는 초강력 규제 카드를 들이대 주택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하지만 서울뿐 아니라 일부 지방도시도 규제(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표 지역이 대전·대구·광주 등이다.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 한 땅값에 정부가 정해 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강남 재건축 단지에 분양

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일반 분양가가 시세보다 30%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변경은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주택법 시행령만 바꾸면 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과 시기, 방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 관심사는 국토부가 시행령을 어떻게 바꾸느냐다. 현행 시행령에서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중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분양가 상한제 기준 어떻게 바뀌나

기존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예상안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1~1.5배 초과 또는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기존 관리처분 인가 신청한 재건축·재개발 단지 제외

예상안 관리처분 인가 신청한 재건축·재개발 단지도 포함

청약자만 10만 명 넘게 몰린 대전아이파크시티 조감도.

청약 경쟁률이 일반주택은 5대 1,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는 10대 1을 초과하거나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할 때 등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일단 정부가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란 조건을 ‘물가상승률 초과’ 또는 ‘물가상승률의 1.5배 초과’ 정도로 손질할 가능성을 점친다. 현행 조건이 너무 까다로우 사실상 새로선 적용 대상 지역이 없다는 지적 때

문이다.

이 경우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대전 등도 분양가 상한제 확대 조치의 사정권에 들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대전 아파트값은 광역시·도 기준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최근 3개월간 0.5% 상승했다. 반면 이 지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최근 3개월 누적 0.4%로 집값 상승률이 못 미친다. 대전시의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도 20.51%에 달해 물가상승률의 2배를 훨씬 넘어섰다.

청약경쟁률로 따졌을 경우 대전뿐 아니라 대구와 광주도 분양가 상한제 폭탄을 맞게 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전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55.9대 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뒤이어 광주(47.6대 1), 세종(40.4대 1), 대구(21.6대 1)가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현재 자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비규제 지역인 지방으로까지 확대할지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대구·광주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 지방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상한제 규제까지 적용할 경우 지방 건설경기가 더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광학석 도시와 공간대표는 “지방 일부 광역시의 주택시장 과열을 잡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나머지 지방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만큼 정부의 고민도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잇단 쌍끌이 수주에... 현대건설 ‘독주체제’ 굳히나

〈국내·해외〉

상반기 해외수주 25억달러
국내 정비사업도 1조 돌파
정진행 부회장·박동욱 사장
투톱체제 시너지 효과 발휘

현대건설 올해 1분기 손익계산서
(단위: 억 원)

구분	올해 1분기	2018년 1분기	증감률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	3조8777	3조5382	+9.6%
영업이익	2052	2185	-6.1%
세전이익(경상이익)	2095	2118	-1.1%
당기순이익	1560	1402	+11.3%



정진행 부회장

주하며 국내 건설사 중 가장 높은 해외수주 실적을 기록했다. 여기에 자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상반기 수주 실적(12억6500만 달러)까지 포함하면 37억7000만 달러로 전체 해외수

주액의 30%를 넘어선다.

올 들어 현대건설은 국내 도시정비사업 수주에서도 독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시공능력 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재건축·재개발 수주액은 총 5조4761억 원에 달한다. 이 중 현대건설이 유일하게 수주액 1조 원을 돌파하며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차지했다. 현대건설은 올 상반기에만 6곳의 정비사

업 시공권을 따내며 총 1조5553억 원의 수주고를 올렸다.

이 같은 성과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업계에서는 정진행 부회장과 박동욱 사장의 투톱 체제가 시너지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그룹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정 부회장은 지난해 말 인사에서 현대건설 사령탑을 맡은 후 국내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 없을 정도로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니며 수주건을 일일이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회장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는 박 사장은 재무전문가답게 손익을 꼼꼼히 따지는 업무 스타일로 유명하다. 때문에 수익성 높은 사업을 선별해 현대건설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구성현 기자 carlove@

6월 새 임대주택 9000채
2년 2개월 만에 가장 적어

지난달 새로 등록된 임대주택이 약 9000가구로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9015가구로 집계됐다. 한 달 전(1만3150가구)과 비교하면 31.4% 줄었다. 올 들어 월간 신규 등록 임대주택이 1만 가구를 밑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7년 4월(8590가구)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적은 규모다.

지역별로 서울은 2934가구가 새로 등록되며 한 달 새 38.7% 급감했다. 수도권 전체로도 36.1% 줄어든 6212가구에 그쳤다. 지방 역시 18.3% 감소한 2803가구가 새로 등록됐다.

지난달 신규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4632명으로 조사됐다. 구성현 기자 carlove@

▼ 화제의 신간

백금남 1456쪽 | 15,000원

“100만부 신화의 재탄생”

1천만 관객 대종상 수상 영화 <관상>의 작가
백금남이 그려낸 거대한 한 폭의 구도화

십우도

백금남 장편소설

‘소를 통해 인간 본성을 내다보다’

소를 통해 인간 본성을 내다보다.
천만 관객 영화 <관상> (명왕)의 작가 백금남이 그려낸 거대한 한 폭의 구도화

삼성문학상 수상 베스트셀러

한 개인의 정신적 발전 과정을 불교적 관점으로 추적한 역사작이다. - 이청준 소설가

제대로 갖추어진 소설로서의 틀과 문장력, 우선 재미있게 끌고 가는 힘이 있다. - 정규용 문학평론가

언어를 잘 꿰어 갈무리한 문체의 특성과 백정의 한과 사무친 실용의 용이리를 불교적 사유와 순환의 구조 속에서 감동으로 말해 주고 있다. - 김선학 문학평론가·교수

한(鰐)이라는 감성적인 이야기로 끝낼 수 있는 백정의 이야기를 도(道)로 승화시킨 점이 아마 가장 훌륭한 점이 될 것이다. - 서정기 문학평론가·교수

www.muhan-book.co.kr | muhanbook7@naver.com | Tel. 02-322-6144 | Fax. 02-325-6143 | 무한

‘인보사 사태’ 상장 주간사로 불똥

檢, 한국·NH투자증권 압수수색... 코오롱티슈진 상장 과정 조사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변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코오롱티슈진 상장 사기 의혹 관련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11일 오전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코오롱티슈진 코스닥 상장 관련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를 연구·개발해 미국 내 허가 판매를 맡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등은 코오롱티슈진 상장을 주관했다.

당시 코오롱티슈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용으로 제출한 자료를 상장 심사를 위해 제출했다. 식약처가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코오롱티슈진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한국거래소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에 대해 해외 바이오 기업에 대한 특례 상장 주선인 자격을 내년 1월까지 제한했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인보사 성분이 변경된 사실을 알면서도 식약처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계열사 상장을 추진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 분사,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달 3일 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아 상장 업무를 담당했던 권모 전무, 최초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장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한편, 코오롱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식약처를 상대로 품목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유승준 17년 만에 한국 오나 대법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입국 금지” 원심 파기환송

2002년 대중과의 약속을 어기고 병역 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스텐 유·43·사진)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 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유일한 이유로 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총영사관이 법적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있기 전 입국금지 결정은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행정 내부의 지시에 불과한 만큼 이를 이유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



지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유 씨는 국내 연예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던 중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수차례 밝혔다. 그러나

2002년 1월 열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유 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법무부는 ‘국군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외국 국적 취득을 병역 면제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던 유 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법무부의 입국제한 조치를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장효진 기자 js62@



닥터헬기에 새긴 ‘ATLAS’ 의미는... 이국종(왼쪽)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이 11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도장공장에서 김경수가(우) 경남도지사,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 사장에게 24시간 닥터헬기에 새긴 ‘ATLAS’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ATLAS는 고 윤택 전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폴사인이다 이 헬기 폴사인 호출부호다. 연합뉴스

위례신사선 사업 본격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이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을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확정하고 제3차 제안 공고를 1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실

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위례신사선 도시철도는 2017년 1월 강남메트로주식회사(가칭)로부터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받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의뢰해 2018년 11월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을 인정받았다.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삼석역·강남구

신사동을 잇는 도시철도(총 14.7km)에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부족한 위례신도시 지역의 교통 편의를 향상시키고 송파·강남구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희 기자 jh6945@

‘국정원 뇌물’ 최경환 의원직 상실

징역 5년 확정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5000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활동하던 2014년 10월 예산 증액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뇌물을 조성해 이현수 기초실장을 통해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국가 예산을 편성·관리하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직무 관련 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한 정부 기관의 예산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 권한을 갖고 있었고, 이런 영향력 때문에 1억 원이 지원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7월호 발매

시니어 공감 매거진 **BRAVO My Life** Monthly Magazine
2019. 07 VOL. 05

다시 빛을 반성기 하며 '평생 일귀 좋은 꿈 나누며 살고 싶다'

남새를 추억하고 향기에 취하고

scent

COVERSTORY 남새를 추억하고 향기에 취하고

PART1. 기억 속 향훈 - 까마득한 남새가 새삼 그립습니다

PART2. 남새에 관한 설문조사 - 당신의 남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ART3. 약취 발생시키는 질환과 해결법 - 물·일·말, 약취의 근원론?

PART4. 일 남새 고민 - 귀취 집으러다 만나는 소통 공간

PART5. 일상 속 약취 솔루션 - 상쾌한 여름을 위한 천연 탈취 DIY

PART6. 향기의 품격 - 현대사회는 향기가 고르다

PART7. 인생의 내음 - 향기를 부르는 이야기들

신라비가 만난 사랑

시아 있는 한 인생은 인생이 아니라 사랑이다
시인 이규리

이억되고 살 거 없다
물처럼 살면 빛나거든
전방위 예술가 문순우

정열로 함박웃음 짓다
마술사 겸 영화인 조용서 씨

플레이팅 시니어 위협하는 심장병

인간의 생리활동이 정지되는 상황, 즉 사망을 판정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호흡과 심장박동의 유무에 달려 있다. 심장이 우리 생명과 가장 직결되는 장기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심장에 발생하는 질환을 흔히 심장병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종류가 다양해 하나의 병이라고 말하기 모호할 정도다. 심장병 중 중장년이 조심해야 할 대표적 질환을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순환기학과 장성원(장성원·46) 교수와 함께 알아보자.

귀촌

별 생각 없었던 귀촌이 별나게 즐겁습니다

별 별 생각과 공리를 더하고도 망설이게 되는 게 귀촌이나 귀농이다. 그러나 김석봉 씨는 별 생각 없이 시골로 왔다. 무슨 생각처럼 영롱한 오랑중의 현몽이 그를 이끈 건 아닐 것이다. 그는 매우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거나, 자나 깨나 귀촌을 숙원으로 여긴 바가 없었으니 하필 추미진 산골로 타러가는 계기를 받았을 리 만무하다. 여하튼, 별 생각 없이 귀촌한 석봉 씨는 별 탈 없이 살아왔다. 별 생각이 없었으니 별 풀림도 없었을 청량지다. 사실은 별 풀림이 없어졌다. 별 풀림이 일어나야 살아야 하는 속내가 술을 들리나갔다.

고고하게 인천·경기편

고고는 오래된, 고상한, 뛰어난 등의 의미로 쓰인다. 그 수사에 걸맞은 맛깔, 이름하여 '고고'를 찾아간다. 지하철 인근으로만 생활해 찾기도 쉬우니 어서 고고(go-go)를 외치자!

시니어 밥상

올레이드 사찰음식
원기회복에 도움 주는 보양 레시피

상속과 증여 톨마보기

김승우 변호사
내 재산은 어디로 '성년후견제도'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광고문의 Tel. 02-799-2698 Fax. 02-799-2666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발레리나 김주원이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S씨어터에서 열린 뮤지컬 '김주원의 탱고발레-3Minutes: Su tiempo' 프레스콜에서 발레리노 이영철과 탱고 음악에 맞춰 '사랑과 이별' 연기를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 세종문화회관

순백의 발레리나, 붉은 탱고를 추다

주말에 어디 갈래? 뮤지컬 '김주원의 탱고발레'

“탱고를 좋아해요. 탱고 음악은 3~4분 이어지는데, 그 안에 기승전결이 다 있고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발레리나 김주원(42)은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S씨어터에서 열린 뮤지컬 '김주원의 탱고발레-3 Minutes: Su tiempo' 프레스콜에서 탱고와 발레의 만남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발레와 탱고의 만남은 생소하다. 그는 “발레와 탱고는 다르지만, 드라마를 몸으로 표현하고 이야기를 담아내는 부분에서는 비슷하다”며 “발레도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장르이고 탱고도 서러움, 그리움, 한과 같은 정서가 들어 있어서 몸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주 다르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공연은 한 밀롱가(탱고를 추는 장소)를 찾게 된 여자의 사랑과 이별의 시간을 탱

김주원, 6년 만에 예술감독으로 3분 춤에 만남·사랑·이별 담아 국립발레단 수석 이영철과 호흡

“압도돼 그냥 울고 말았습니다” 출연자 재즈 싱어 웅산도 호흡

고 음악과 춤, 노래로 표현한다. 밀롱가의 가수로는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과 유사랑이 더블 캐스팅됐다. 음악감독은 탱고 밴드 라 벤타나의 리더 정태호가 맡아, 그의 4인조 밴드가 공연의 곡을 연주한다.

웅산은 “처음 이 작품을 만든다고 들었을 때 발레로 탱고를 표현한다는 것에 호기심이 생겼다”며 “탱고를 사랑하는 김주

원과 정태호 감독 그리고 제가 모인 이 작품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달하고 싶다”고 했다.

정태호 음악감독은 “탱고는 처절하게 슬프기도 하지만 그 슬픔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닌 음악 안에 희망이 내포돼 있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며 “이 공연을 준비하며 힘들기도 했지만 뭉치 모를 에너지가 생겨났다. 이 작품을 통해 관객분들도 에너지를 얻어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주원과 함께 춤을 추는 파트너로 국립발레단 수석 무용수 이영철이 출연한다. 발레리노 강준하와 윤전일 등의 무대 역시 시선을 사로잡는다.

김주원은 파트너 이영철에 대해 “하나의 심장, 세 개의 다리라고 할 정도로 탱고는 두 사람의 심장이 맞닿아 있는 춤이다. 다리 하나는 항상 쪼고 있어 세 개의 다리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토슈즈 위에서 테크닉을 하려면 파트너를 나 자신만큼 믿어야 한다. 토슈즈를 신고 탱고를 하는 것에 대

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영철 씨 덕분에 편안하게 했다”고 했다.

제목 '3 Minutes'는 탱고를 추는 두 파트너가 춤을 추는 시간 3분을 의미한다. 이 시간 동안 추는 남녀의 애절한 춤 속에 만남과 사랑, 이별의 서사가 담겨 있다.

김주원은 “다른 예술 장르의 에너지를 느껴서 춤으로 표현해내니까 그냥 발레만 했을 때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생기는 것 같다”면서 “다른 장르의 예술가들이 (공연에서) 각자 노래, 음악, 몸으로 탱고를 표현하지만, 탱고를 좋아하는 마음은 비슷하다. 제가 탱고를 들으면서 받았던 위로를 관객들도 공연을 통해 느끼면 좋겠다”고 했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 10월 개관한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 기획 프로그램 '컨템포러리S'의 첫 번째 프로그램이다. S씨어터는 300석 규모의 가변형 극장으로, 무대와 객석의 구분을 허물고 연출 의도에 따라 창의적 시도가 가능한 공간이다.

김주원은 2013년 발레 '마그리트와 아르망' 이후 6년 만에 예술감독을 맡았다. 그는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 무대를 보자마자 탱고 밀롱가로 꾸며 놓으면 그 자체로 탱고의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탱고와 발레, 재즈를 융합한다는 도전에 대해 “20년 이상 클래식 발레를 추면서 제 안에 녹아든 발레의 기본 덕분에 더 다양하고 아름다운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게 됐다”며 “더 다양하고 많은 표현을 위해 평소에도 좋아했던 탱고 장르를 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웅산은 김주원의 첫해 날 리허설을 본 소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첫 리허설 때 바로 제 눈 앞에서 발레로 감정을 표현하는 주원 씨를 보고 압도됐고, 그냥 울고 말았습니다.”

뮤지컬 '김주원의 탱고발레-3 Minutes: Su tiempo'는 14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 김소희 기자 ksh@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왼쪽)과 웨이 허. 사진제공 예술의전당

바흐·하이든·모차르트와 떠나는 시원한 음악여행

20일 예술의전당 '토요콘서트'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웨이 허 코리안 챔버오케스트라와 협연

무더운 여름의 시작 7월, 예술의전당이 바로크와 고전주의 음악으로 떠나는 시원한 음악여행에 나선다.

예술의전당은 '토요콘서트'의 7월 무대를 오는 20일 오전 11시 콘서트홀에서 개최한다.

'토요콘서트'는 평일 공연 관람이 어려운 관객을 대상으로 매월 셋째 주 토

요일 오전에 열린다. '11시 콘서트'와 함께 예술의전당을 대표하는 '마티네 콘서트'다. 다만, '토요콘서트'는 협주곡과 교향곡 전곡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향곡의 일부 악장을 발췌하거나 악수함 소품으로 구성하는 '11시 콘서트'와 다르다.

이번 7월 공연에서는 바흐부터 하이든, 모차르트까지 우리 귀에 친숙한 바로크와 고전주의 명곡들을 선보인다. 바로크에서 고전주의로 넘어가는 18세기 음악사를 대표하는 작곡가와 대곡들을 한 자리에서 들을 수 있다.

1부에서는 교향곡의 아버지라 불리는

하이든의 첫 번째 교향곡을 시작으로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을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과 웨이 허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2부에서는 당대 최대 규모의 교향곡으로 오늘날 '주피터'란 부제로 널리 알려진 모차르트의 교향곡 41번을 최수열의 지휘와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KCO)의 연주로 만날 수 있다.

유인택 예술의전당 사장은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7월, 토요콘서트가 잠시나마 일상의 고단함을 잊게 하고, 18세기 유럽으로 떠나는 짧은 여행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예매와 문의는 예술의전당 홈페이지와 콜센터, 인터파크에서 가능하다.

◇ 주말 마티네 콘서트 '토요콘서트' = '토요콘서트'는 주말의 문화수요 증가에 발맞춰 2010년 10월 막을 올렸다. 오전 시간대에 편성해 품격 있는 주말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가시간 활용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햇수로 10년을 맞은 '토요콘서트'는 김대진 지휘자(2010~2015년), 최희준 지휘자(2016~2017년)에 이어 지난해부터 정치용 지휘자가 지휘와 곡 해설을 맡았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토요콘서트”는 지휘자가 연주 전에 직접 곡을 해설하고 전곡 연주를 들려준다는 점에서 짧은 연주곡들로 구성하는 여타의 마티네 콘서트와 다르다”고 했다. 김소희 기자 ksh@

“인생이 뭐 별건가 어디든 흘러가는 물처럼 살면 되지”

전방위 예술가 문순우 화백

저무는 놀빛 앞에선 허허롭다. 서산 너머로 사라진 해는 이제 어느 속소를 찾아가는가. 인생 황혼에 접어든 사람은 어디로 가나. 만족은 없고 갈증은 자글거린다. 요즘 말로 '심쿵'은 멀고, 딱딱한 가슴에 먼지만 뽀뽀 날린다. 이진 집나게 먹은 나이에 보답하는 정경이 아니다. 어이하나. '나, 물처럼 살래! 흐르는 물이 돌부리에 걸리거나 진땀 뺀는 법이 있던가. 물이 답이자 선생이다!'

문순우(73) 화백은 그리 생각한다. “너, 나를 물로 보니?”라고 할 때의 그 물이다. 웬다구나, 가끔씩 만만하게 살자는 얘기일 게다. 그게 잘 사는 길이라는 소식이다. 노자가 설한 '상선약수(上善若水)'의 그 물이니 문순우 기자, 아니 문순우 도사가 취재한 '도(道) 뉴스'일 수 있다.

못 믿을 게 도인이다. 나는 그렇게 본다. 그러하니 문순우를 도사로 읽는 건 결례이거나, 그는 '도'라는 거룩한 단어 자체를 아예 입에 올리지 않는다. 그는 그저 물이 좋아 물을 닮고자 한다. 물처럼 거침 없이 흘러가는 노경(老境)을 선망한다. 이 물은 오늘 숲속의 잠잠한 초록호수처럼 평온하다.

“나 요즘 편안하거든. 여기에서 더 바랄 게 없어요.”

문순우의 올해 나이 일흔셋. 이미 볼 것, 못 볼 것 다 본 연치(年齒). 그가 요새

사진 통해 예술가의 길 입문 도예가·목수·오디오 평론가 와인·재즈도 통달한 전문가

푹어지게 바라보는 건 캔버스다. 죽자 사자 그리는 것 같다. 창작이란 방울방울 피를 뺀 일. 흔히 산고(産苦)에 견준다. 이 힘든 일을 왜 응을 쓰고 하나 싶지만, 문순우는 힘 안 들이고 대꾸한다.

“힘은 무슨 힘? 영감(靈感)이나를 데려가는 것을.”

'영감'이라는 물건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서 후루룩 내려오는지 난 모르겠다. 그러나 매사를 힘들이지 않고 시원하게 해치우는 문순우의 내공이랄까, 그런 게 영감감을 묘사해주는 모양이다. 문순우는 그림만 그리진 않는다. 그는 사진으로 예술에 입문했다. 도예도 주 종목이다. 목수이자 오디오 평론가이기도 하다. 와인과 재즈에 통달한 전문가다. 아마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요리의 달인이기도 하다. 이 기동찬 다재능을 일컬어 '전방위 예술가'라 한다. 어찌 보자면 이도 저도 아니다.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어 하나를 들입다 파더라도 도로아미타불에 그치기 쉬운 게 예술이다. 하나에 쉬 질리거나 웅골차게 들우지 못해 여럿을 동시에 신나게 파 짓히는가? 단연 그게 자연스럽다. 물에 무슨 경계가 있던가. 열에 열 골이 하나로 통하고 모이는 게 물의 생태 아니던가.

나부터 사랑하기
나에게 삼사 년 전 문순우의 거처에서

한나절을 놀았던 추억이 있다. 당시 그의 집은 시골 숲속에 있었다. 그의 집이랄 것도 없다. 남의 헌팅뱅이 대형 창고를 빌려 집으로 개조해 부부가 살았다. 그게 집이라고 할 수도 없다. 오만 가지 진기한 사물들이 절묘한 미학으로 어울린 예술적 파빌리온. 작업실과 와인 바와 집채만 한 오디오 장비가 혼용된 그 창고 건물은 살롱 용도로 쓰였다. 수많은 예술 동네 종족들이 물방개처럼 부실히 드나들었다.

현재 그의 거처는 안성시 외곽 대로변에 있다. 큼직한 신축 건물에 산다. '제네시스 미술관'이라 쓴 팻말이 붙어 있다. 이 집도 그의 것이 아니다. 가혹한 후배들이 지어 준 건물이다. 내부는 전에 살았던 창고 건물 풍경과 거의 이하 동문이다. 오디오를 켜면 그의 귀는 칩냥쿨처럼 뺨어 선율을 빨아들일 게다. 와인 병이 즐비하니 취하고 싶을 때 취할 테지. 이 집의 모티브 역시 살롱이다. 사적으로는 미술작업실이고 공적으로는 재즈 클럽이다. 그는 재즈에 흘러 산다. 재즈의 무엇에 심취하지?

“재즈 가수 빌리 홀리데이의 대표곡 '이상한 과일(strange fruit)'은 백인종주의자들에게 살해된 흑인들의 억울함과 슬픔을 노래했어. 자유와 해방을 노래로 외쳤다고. 그게 재즈 정신이요. 재즈를 듣다 인생이 변한 사람도 있는 걸 보면, 재즈란 고도의 매혹적 예술이겠지.”

“이곳에서 매월 한 차례씩 재즈 공연이 펼쳐진다죠? 재즈 전도사로 나선 거예요?”

“한국인의 암 발생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더군. 난 문화의 열약함에도 원인이 있다고 봐요. 예술이란 어디에 쓰이느냐, 남들에게 이바지하는 거, 즉 사회적 공헌에 목적이 있다고 봐요. 내 그림도, 재즈 공연 기획도 문화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데 일조하길 바라며 하는 것들이지.”

집문서 없어도 잘 산다

인생이란 희로애락을 다단투로 매단 럭비공을 닮았다. 문순우의 삶이 그렇 일개 한다. 돌아다니는 세상, 겪은 세사가 많아 일화도 슬하다. 누적된 연기(緣起) 속에서 명멸한 기억들... 아프기로는 월남전에서 목도한 참상이고, 곱살하기로는 걸레스님 중광의 해맑은 심흔이 남긴 잔상이다. 일테면 그건 문순우가 보유한 정신적 체력을 북돋우는 한 가지 양분이었던 것 같다.

“언젠가 용산역 앞에서 어느 스님이 건달들에게 호되게 당하고 있더라고. 그걸 내가 뛰어들어 수습했어. 알고 보니 중광 스님이더라고. 이후 가족처럼 지냈지. 내 삶으로 육박해온 가장 정명한 성과였다고 할까. 때로 파격의 괴물이었으나 근본은 순진무구의 화신이었어.”

“사람이 새벽이슬도 아닌 것을, 순진무구를 유지하며 이 난잡한 속세를 견딜 수



문순우 화백(1)의 작업실 겸 재즈 클럽 '제네시스 미술관(2)' 모습. 인터뷰 당시 직접 점심식사 준비(3)에 나선 문 화백은 목은지 파스타(4)를 똑딱 만들었다. 문순우 화백의 주방(5). 주인وک 프리랜서 minwook19@hanmail.net

있을까요? 때 묻히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기에 용케도 순수한 사람들이 그림고 좋고 사랑스러운 게 아니겠어? 이 순수란 종류수와도 같은 무군 상태가 아니라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 품성과 실천을 말하는 것이라고.”

“당신 역시 봄바람처럼 따사로우 인간적이지만, 일면 자학적이기도 해요. 그 독특한 파이프담배 아니면 시가만을 피우다니, 그거 자학 아닌가요?(웃음)”

“애연가 등소평(등사오평)은 아흔네 살까지 살다 간 것을.(웃음) 그가 말했지. 흡연은 젊은이에게겐 낭만을, 늙은이에게겐 위엄을 부여한다고. 와인은 또 얼마나 좋은가. 내가 아직 건강한 몸으로 사는 것도 와인을 날마다 마신 덕분이지.”

술타령으로 죽을 쏜 인생이 많지만, 술이 건진 고통과, 술이 익힌 시와 노래는 또 얼마나 많은가. 그는 와인과 노닐어 맛과 낭만을, 작업의 효율을 구가하는 것 같다. 그의 내부에도 고통과 불안이 고여 있을 테지. 그 어찌할 수 없는 생의 우수를 술과 음악으로, 또는 창작으로 청소하길 능란하게 하는 사람. 해서, 태연하고 평온하게 노년을 영위하는 사람. 그게 문순우이며, 이

남 대하기를 날 대하듯 하니 작업실부터 와인까지 내어줘 가진 건 없지만 사람이 재산

런 그에게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전혀 없는 건 돈이다.

이상하지 않은가? 우리가 모두 그 앞에서 절을 하는 물신(物神)의 가호를 받지 못한 채로 영일(寧日)을 누리다니. 늙어서도, 심지어 죽어가면서도 돈이라는 감옥에 갇히기 십상인 게 삶이지만, 그는 감옥 밖에서 말짱하다. 비결이 뭐까? 그를 물로 보면 답이 나온다. 어디든 흘러가 채워주는 물! 목마른 자에게 흘러들어 한잔의 샘물이 되는 삶! 그는 그런 지향으로 살아왔다는 게 아닌가. 그 결과 집문서는 없으나 사람문서를 쥐게 됐다.

“나를 부르주아라고 오해하기 십상이지. 그러나 난 가진 게 없어요. 웃가지도 30년째 입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작품 재료도 모두 폐품을 활용한다고. 식재료도 뒷밭에서 손수 길러 쓰고 말이지. 돈 들어갈 게 뭐란 말인가.”

“날마다 마시는 와인은 어디서 오죠?”

“작품이 팔리면 와인부터 비축하지만, 작품이 팔리는 일은 드물지. 그걸 잘 아는 제자나 후배들이 와인이며 시가며, 심지어 거처까지 마련해 주더라고. 아아, 내가 헛되이 살진 않았구나. 그런 생각 자주하는 것이여.”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었기에 그토록 받으시지요?”

“남을 대하기를 나를 대하듯이 하자. 이기심을 버리는 게 자유롭게 사는 지름길이라 여기며 살았어요. '주변과 타인을 채우는 샘물로 살아야겠다. 언제 어디서든 남을 소중하게 여기면 그게 메아리로 돌아온다. 그게 나를 채우는 길이다' 그런 신념을 잊지 않고 실천했어. 사실, 우리는 모두 빛쟁이 아닐까? 남들에게, 세상에 신세 지지 않고 존재할 수 있던가? 그렇다면 날마다 빛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사는 게 옳지 않나?”

“이 악물고 살 거 없다. 계산 없는 물로 돌아가 세상 빛을 갚으면 빛난다!” 그게 문순우의 비결이다. 우! 난 오늘 한 방 맞았다. 허울 좋은 처신과는 격이 다른 고수(高手)의 이타(利他), 그 실천적 뉴스에. 박원식 객원기자 bravo@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KB증권, 원화만으로 가능한 해외주식을 열다

GLOBAL ONE MARKET

불편했던 해외주식을 국내주식처럼 쉽고 편하게!
원화 거래로 더 편해진 해외주식,
지금 글로벌 원마켓에서 만나세요

-  원화 거래로 편리하게!
-  당일 거래로 바로바로!
-  환전 수수료 평생 무료!

[글로벌 원마켓 서비스 신청 시]
*일부 통화 한정
*국민은행 실시간 매매기준율 환율적용
(외환시장 마감시 익일 환율적용)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9-00378호(2019년1월31일)*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 청취 후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글로벌원마켓] *미국 주식수수료 온라인기준 0.25%
(매도시 0.0013% 제비용 별도) 일률적용합니다. *매체별, 금액별 수수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도해지시 환전수수료 발생가능 *글로벌원마켓 가능국가 : 미국, 홍콩, 중국A, 일본

“반복 사고 막으려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재난·사고 피해자 법률지원...신현호 변형 인권위원장

시설안전·피해배상 금액 어느 정도 균형 맞아야 안전에 투자 최근엔 헝가리 유람선 사고 TF 구성 피해자 법률지원 팔건어

“시설 안전을 위해 들이는 돈과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한다. 물어주는 비용이 더 싸면 계속 이런 일이 생긴다.”

신현호(사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은 11일 “미국에 준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오랜 기간 대형 사고 피해자들에게 법률 지원을 해오면서 느낀 점을 이같이 말했다.

변형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생명안전특위) 초대 위원장을 지낸 그는 지금도 재난, 사고 현장에서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노란 조끼’를 입고 활동 중이다.

생명안전특위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시작으로 스텔라데이치오 침몰 사고,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 종로 고시원 화재

사건 등 다수의 재난 및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법률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생명안전특위 활동에는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신 위원장은 “인권 보호 활동을 하는 모 변호사는 수입이 부족하다 보니 직원들 월급을 주려고 대출을 받기도 했다”면서 “사건 수임 때문에 이곳저곳 다니는 게 아니냐는 오해도 받는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에 신 위원장은 생명안전특위 소속 변호사들은 국민의 인권과 사회적 정의를 위해 이해관계를 떠나 이념적으로 활동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세범·황필규·홍지백·최석봉·이시정 등 후배 변호사들과 같이 일하



게 돼 정말 영광이고 행복하다”며 “자기 일을 포기하면서까지 현장에 나가 인권 보호 활동을 하는데 존경스럽다”고 말했다.

최근 신 위원장은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매를 건어붙였다.

신 위원장은 △유족지원 △행정지원 △정부대응 △국내법 △국제법 등 5개 팀으로 구성된 ‘유람선 사고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의 단장을 맡았다.

법률지원 TF는 첫 해외 법률지원 활동인 만큼 헝가리와 유럽연합(EU)의 관련 법률에 능통한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인력을 구성해 전문성을 높일 생각이다. 더불어 국내에 비슷한 사건·사고 처리 결과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들은 향후 세계한인법률가단체 및 현지교민회 등과 MOU를 체결해 해외여행 중 발생하는 인신사고에 대한 법률 상담 등 업무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모든 법률 지원을 다할 생각”이라며 “필요하다면 기금을 모아 다뉴브강 사고 장소에서 현장검증하거나 현지로 펌과 공조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중용 기자 deep@

사진 신태현 기자 holjjak@

트럼프 험담 이메일 유출 주미 영국대사 결국 사임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험담한 이메일 유출로 곤란을 겪은 김 대덕(사진) 주미 영국대사가 결국 10일(현지시간) 사임했다.



BBC방송에 따르면 영국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대덕 대사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대덕 대사는 외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문서가 유출된 뒤로 내 자리와 대사 임기에 관한 여러 추측이 있었다”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내가 대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보고서 내용이 공개된 후 트럼프 대통령은 “대덕 대사를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사임을 요구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채원규

신용보증기금은 신임 전무이사에 채원규(사진) 상임이사를 선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채 신임 이사는 1963년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 경북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공채 22기로 신용보증기금에 입사했다. 강서지점장, 인사부장, 대구경북영업본부장, 경기영업본부장, 서울서부영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경영지원본부 상임이사로 재직해왔다.

곽진산 기자 jinsan@

게시판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이병철씨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임시총회를 열고 이병철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을 부회장에 선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신임 부회장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행정고시(30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뒤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장과 투자정책국장,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장, 경영기획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희숙 유엔 전문가회의 부의장 선출

한국소비자원은 이희숙(사진) 원장이 8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유엔무역개발회의 제4차 소비자 정책전문가 회의에서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자 정책전문가 회의는 80여 개국이 참여해 2016년부터 회원국의 유엔 소비자보호지침 적용, 이행 모니터링 조사 등을 통한 개발도상국 지원 등을 하고 있다.



LG전자, 강원지역 소방서에 ‘방화복 세탁기’ 20대 기증

LG전자가 4월 발생한 강원지역 산불을 진화한 소방관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방화복 세탁기를 기증했다.

LG전자는 10일 강릉시 흥제동에 위치한 강릉소방서에서 ‘방화복 세탁기 기증식’을 열고, 강원도소방본부 산하 6개 소방서에 방화복 세탁기 20대를 기증했다고 11일 밝혔다.

방화복 세탁기가 없는 소방서에서는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을 마친 뒤 검은 그을음이 묻은 방화복을 손빨래하거나 일반 세탁기를 사용해 세탁한다. 방화복은 특수섬유를 사용해 만들기 때문에 세세하게 세탁

하지 않으면 방화복 성능이 떨어질 수 있고 이는 곧 소방관들의 안전과도 연관된다.

LG전자는 소방관들이 방화복을 세탁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덜기 위해 2017년 12월 방화복 세탁기를 출시했다. 세탁통의 회전속도, 헹굼, 탈수 등 세탁 알고리즘을 조절해 방화복 전용 세탁코스를 개발했다. 방화복 세탁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실시하는 인정시험과 제품검사를 통과해 ‘KFI 인정’을 획득했다.

LG전자 리빙어플라이언스B2B·육성사업담당 장보영 상무는 “이번 기증이 소방



LG전자와 강원도소방본부가 강릉시 흥제동에 위치한 강릉소방서에서 ‘방화복 세탁기 기증식’을 진행하고 있다.

관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많은 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화

복 세탁기와 같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HUG, 축구 멘토링 사회공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축구 멘토링 사회공헌 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지역 축구전문 퇴직자(멘토)와 유소년 축구선수(멘티)를 일대일로 매칭 축구기술과 경험을 전수하는 HUG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HUG는 올해 시니어멘토와 유소년 축구선수 멘티를 각 55명씩 선발해 축구 멘토링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활동·운영비 6000만 원을 사회공헌 협력기관인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후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제주항공, 외도초등생 대상 ‘항공안전교실’ 운영

제주항공은 제주 외도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 120여 명을 대상으로 ‘항공안전체험교실’을 운영했다고 11일 밝혔다.

항공안전체험교실에는 5명의 제주항공 객실승무원이 강사로 나서 △구명복 착용 방법 △산소마스크 이용법 △좌석벨트 착용 방법 등에 대한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항공기에서의 객실승무원의 역할

과 승무원의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들에 대한 질의응답 등을 통한 진로교육도 시행했다.

제주항공은 항공안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14년부터 매월 체험교실을 운영했다. 1~2곳의 전국 초·중학교와 청소년단체나 시설을 찾아 ‘항공안전 체험교실’을 진행하며 항공안전 전반에 걸



친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김기송 기자 kissong@

GS리테일, 초복 맞아 복지관에 도시락 500인분 전달

GS리테일이 공식 봉사단 GS나눔이를 통해 서울YMCA봉천종합사회복지관에 어르신들을 위한 보양식 ‘장어 도시락’ 500인분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전광호 GS리테일 H&B(헬스앤뷰티) 부문장과 김은희 서울YMCA봉천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을 비롯해 GS리테일의 공식 봉사단 GS나눔이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GS리테일은 초복을 하루 앞두고 사회복지관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무더운 여름날을 건강히 보내시길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이번 도시락 나눔을 준비하게 됐다. 이와 더불어 GS리테일은 서울YMCA봉천종합사회복지관



에서 필요한 500만 원 상당의 전자제품도 기부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김해박물관장 오세연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장 조택연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장 조현훈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권병훈 △동부광산안전사무소장 김희석

◆경찰청 ◇총경 전보 [경찰청] △기획조정실 경찰개혁추진TF팀장 유윤중 △교육정책담당관 배대희 △생활질서과장

장우성 [경찰대] △교무과장 남제현 △기획협력과장 최영우 [경찰인재개발원] △운영지원과장 전용찬 △학생과장 광병우 [경찰병원] △총무과장 김진복 [서울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과장 이재훈 △기능범죄수사대장 박동주 △보안2과장 엄기영 △제5기동대장 박영수 △국회경비대장 박경정 △경찰특공대장 박준성 △성북서장 김중민 △동작서장 양우철 △강북서장 진중근 △금천서장 최성영 △방배서장 손동영 [파견] △국무총리비서실 김병우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박찬우

부음

▲김원덕 씨 별세, 김상일·애복·상만(GC녹십자아이메드 원장)·순복 씨 모친상, 원용훈·박종식 씨 장모상, 박영미·송봉숙 씨 시모상 = 11일,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3일 오전 7시, 031-787-1500

▲김명식 씨 별세, 성현철(신한금융투자 PWM강남센터장)·현정·현주 씨 모친상, 이서정 씨 시모상, 박정길 씨 장모상 = 11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3일 오전 6시40분, 02-3010-2000

▲한병용(요한) 씨 별세, 전영희 씨 남편상, 한태영(삼성물산 책임)·기영(캐치업코리아 이사) 씨 부친상, 성정미 씨 시부상 = 11일, 부산 고신대복음병원 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13일, 051-990-6444

▲양승근 씨 별세, 양정아(MBC 22기 공채 탤런트, 영화배우)·지환(대신증권 자산리서치부 부장) 씨 부친상 = 11일, 경기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층 5호실, 발인 13일 오전 8시, 031-787-1500

▲이태임 씨 별세, 설광섭(경찰청 정보

화장비정책관) 씨 모친상 = 11일, 대구파티마병원 장례식장 5층 귀빈실, 발인 13일 오전 10시, 053-958-9000

▲박송천 씨 별세, 신철(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집행위원장)·정철·동철 씨 모친상 = 10일, 신촌세브란스병원 특2호실, 발인 13일 오전 7시 20분, 02-2227-7580

▲강성원 씨 별세, 강춘은(교보라이프플래닛 전문위원)·춘길(현대카드 팀장) 씨 부친상 = 11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13일, 02-2227-7569

문제도의 세상 이야기



서울대 객원교수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함석헌 선생의 '그대는 고틀방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생각한다. 여기서 고틀방은 자기만의 시공간이다. 현대인이 네트워크 사회에 살다 보니 떨어져 있어도 휴가를 가 있어도 현장과 늘 연결되어 있다. 더구나 우리 사회는 1990년대 외환위기, 2000년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뛰면서 생각하는 습관에 익숙해졌다. 그러나 정신없이 살아온 우리 세대가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고틀방이 필요하다.

얼마 전 모임에서 졸업여행으로 해외를 다녀왔다. 2박 3일을 지내는 동안 과거 고등학교 시절 수학여행처럼 이곳저곳을 방문하고 저녁에는 단합대회까지 했다. 그리고 귀국하자마자 지방에 일정이 있어 새벽같이 기차를 타고 가 조찬 모임과 다른 일정을 소화하고 왔더니 온몸이 으스스하다. 휴가 겸해서 떠난 여행이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고자 했지만 이번에도 무리였다.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토록 기다려온 여름 휴가철이 다가온다.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기 전에 직장의 스트레스를 벗어나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반대로이다. 한국 사회가 단기간에 압축 성장을 하면서 노동의 가치는 중요시하고 휴식은 버려지는 시간처럼 여겨지다 반사였다. 직장에서 여름 휴가를 간다는 것이 나의 일을 남에게 맡겨 놓는 것 같아 포기하거나 단축하기 일쑤였다. 치열한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면 남보다 덜 놀고 더 일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보편화된 세상을 우리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힘

살아왔다.

그러던 내가 휴가를 제대로 가본 것은 미국에서 잠시 일하던 시절이었다. 해외 근무 첫째 여름 휴가를 가기 위해 직장 상사에게 휴가원 결재를 받으러 들어갔다. 휴가를 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꾸밈없이 했더니 눈치를 채고 이야기한다. "미스터 문, 앞으로는 설명하지 마시고 그냥 내 책상 위에 올려 놓으시면 됩니다." 비로소 깨달았다. '아하, 이래서 미국은 예약 문화가 일상화되어 있구나.' 미국의 조직에서 휴가는 재충전을 위한 조직원의 권리이다. 물론 매년 성과 관리는 철저하다. 계약된 성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승진은 고사하고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 더구나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기려면 전에 근무하던 곳의 상사 평가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직장 생활에서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풍도였다. 대량 생산 체제하에서 후발 주자로서 경쟁력을 제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리를 지키고 일을 많이 하는 것이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3만 달러를

넘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을 가지려면 혁신 선도자(first mover)가 되어야 한다. 남들이 가본 길을 빨리 따라가기 위해서는 앞만 보고 열심히 일하면 되겠지만 가보지 않은 길을 제대로 가려면 창의력이 필요하다.

독일의 저널리스트가 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힘'은 피로 사회의 증후군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우리 사회에서 곱씹어 볼 만한 내용이다. 인간이 수면을 통해 원기를 회복하며 복잡한 사안들에 대한 복기를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아인슈타인이나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처칠 수상도 잠을 즐겼다 한다. 사실 잠을 제대로 자지 않으면 일상적인 일은 처리할 수 있겠지만 멍한 상황에서 창의성이 생길 리 만무하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져본 경험이 별로 없었다. 오히려 쏟아지는 일을 처리하기 위해 잠을 줄인다. 때때로 하루 24시간이 짧게 느껴졌다. 그러나 실제로 복잡한 사안이 정리되는 것은

혼자만의 휴식을 가질 때였다. 그래서 주말 아침에 혼자 산책하는 습관이 생겼다. 운동을 위해서라면 빠르게 걷거나 뛰어야 하지만 가끔씩 천천히 걸었다. 걸으면서 그 동안 나를 짓눌렀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 복잡하던 일들이 의외로 쉽게 정리되면서 해결 방법을 찾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함석헌 선생의 '그대는 고틀방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생각한다. 여기서 고틀방은 자기만의 시공간이다. 현대인이 네트워크 사회에 살다 보니 떨어져 있어도 휴가를 가 있어도 현장과 늘 연결되어 있다. 더구나 우리 사회는 1990년대 외환위기, 2000년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뛰면서 생각하는 습관에 익숙해졌다. 그러나 정신없이 살아온 우리 세대가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고틀방이 필요하다. 고틀방에서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잠(沈潛)의 시간을 갖는다면 새로운 에너지가 생길 것이다. 이번 여름 휴가엔 짬을 내어 그대만의 고틀방을 가져보길 권한다.

김치호의 古美術을 찾아서



고미술 평론가
전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순백의 아름다움, 조선의 아름다움으로

색다른 장식을 요구했던 것 같다. 그 요구에 부응하듯 중앙아시아 옥사스(Oxus)강 지역에서 산출되는 청색 안료가 중국에 들어오고 그것으로 도자기의 표면을 장식하는 변화가 일어난다. 도공들에게 옥 같은 표면에 끈적끈적한 칠을 한다는 것이 너무 속(俗)된 것이어서 불쾌감마저 들었겠지만, 세상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고 '도자의 변'이라고 불릴 만한 채색자기, 즉 청화백자는 그렇게 해서 태어났다.

그 무렵 고려는 비색 상감청자의 여성(餘盛)이 이어지는 가운데 백자도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었다. 기술적으로 청자 못지않았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아쉽게도 남아 있는 고려백자가 너무 소량이라서 양식적·조형적 특징을 살피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원나라 때 시작된 채색기법은 계속 발전하여 명나라 선덕(宣德) 연간(1425~1435)에 청화의 발색과 문양이 뛰어난 백자가 본격적으로 생산된다. 그런 흐름은 바로 조선에 전해져 한반도에서 중

국 못지않은 양질의 청화백자가 만들어지는 것이 15세기 중후반이 아닌 약간의 시차가 있는 셈이다.

조선의 청화백자는 시간이 흐르면서 명나라 청화백자와는 미감의 결을 달리하며 고유색을 분명하게 들어낸다. 절제된 기형 예다 시문(施文)에서는 여백의 미를 추구했고 거기에 한민족 본연의 미감과 생명력이 더해졌다. 비교컨대, 기교가 가득 들어간 그릇의 표면을 숨 막힐 듯이 각종 문양으로 꽉 채운 명나라 청화백자가 공예적 아름다움이라면 조선의 그것은 회화적 아름다움이라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청화안료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어서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레 채색이 없는 순백자로의 무게 추 이동이 일어난다. 그리하여 순백자는 안료를 마음껏 쓸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을 넘어 조선의 건국이념인 유교의 절제정신과 버무려짐으로써 겸박하면서도 기품 있는 도자문화로 발전한다.

그 후 조선의 도자산업은 왜란과 호란으

로 극도의 침체기를 겪지만, 17세기 후반 들어 그 충격에서 벗어나 사회가 안정되면서 제 위치를 찾기 시작한다. 영·정조 시대에 청화백자는 문기(文氣) 짙은 조선의 아름다움으로 거듭났고, 순백자는 순백자대로 순백의 미감을 창조적으로 계승했다. 순백의 아름다움이 민족 고유 아름다움으로 체화(體化)되고 그 정점에서 달항아리와 같은 특별한 도자문화가 탄생하는 것이다.

사족 아닌 사족이다. 우리 도자미술사에서 달항아리는 아름다움 너머의 아름다움으로 존재한다. 그 순백의 피부와 넉넉한 몸체,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의 이면에는 조선 도공들의 땀과 고뇌가 서려 있다. 그들의 무심한 손끝에서 창조된 경이로운 조형은 미의 화두(話頭)가 되고 법문(法門)이 되어 우리를 적멸의 아름다움으로 인도한다. 그 아름다움에 대한 나의 원초적 탐닉 때문일까, 달항아리로 유명한 원로 도예가의 전시장에서 백옥의 항아리 표면을 청화로 칠감한 작품을 보며 몸서리쳤던 기억이 새삼스럽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헨리 데이비드 소로 명언
"나는 삶이 아닌 것을 살지 않으려 한다." 미국 시인. 그는 세속적인 명이나 부(富)에 관심을 두지 않은 채 늘 자연과 교감하는 소박하고 단순한 삶을 살았다. 28세 되던 해에 윌드 호숫가의 숲으로 들어가 2년 2개월을 지냈다. 그때의 경험을 정리해 펴낸 '윌드'는 원칙과 실제가 조화를 이룬 대안적 삶의 모델을 그려냈다는 평을 받으며 미국 산문 문학의 고전으로 자리 잡았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817~1862.

☆ 고사성어 / 소탐대실(小貪大失)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손실을 입는다는 뜻. 원전은 북제 유주(北齊 劉晝)의 신론(新論). 진(秦)나라 혜왕(惠王)이 부유한 촉(蜀)나라를 점령하고 싶었지만 길이 워낙 험해 쉽게 출병하지 못하다 옥심 많은 촉후(蜀侯)를 이용해 지혜로 촉을 공략하기로 했다. 소를 조각하게 해 '황금 동을 누는 소'라 이름 붙이고 그 소가 지나간 길가에 황금 덩어리를 떨어뜨려 촉후에 대한 우호의 예물을 보낸다고 소문을 퍼뜨렸다. 촉후는 진의 사신이 올린 현상품의 목록을 보고 눈이 어두워져 촉신들의 간언을 물리치고 '보석의 소'를 맞을 길을 뚫었다. 혜왕은 보석의 소와 함께 장병 수만 명을 촉나라로 보내 쉽게 촉나라를 멸망시켰다.

☆ 시사상식 / 호캉스족
호텔(hotel)+바캉스(vacance). 휴가철에 봄비는 여행지를 가지 않고 사우나, 수영장, 스파, 마사지 등의 시설을 갖춘 호텔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 신조어 / 엄근진
'엄격하다', '근엄하다', '진지하다'의 앞글자만 가져와 만든 신조어. 점잖고 철저하게 엄숙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게 쓴다.

☆ 유머 / 거지의 강변
길거리에서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었다. 지나다니는 사람이 "팔다리가 멀쩡하면서 왜 구걸을 합니까?"라고 했다.

거지의 변명. "요거 몇 폰나 되다고 팔다리를 잘라야 합니까?"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삶연구소장

2017년 11월 정부는 주택 100만 호를 공급한다고 했다.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서라고 했다. 그런데 '왜' 2년 가까이 흐른 지금도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까.

후분양 참여도 독려했다. 국민이 주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살 수 있는 좋은 취지라며. 그런데 '왜' 건설사도, 실수요자들도 후분양은 의미 없다고 할까.

또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청약 예비 당첨자를 확대했다. 예비 당첨자 비율을 공급 물량의 5배까지 늘린다는 거였다.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서라며. 그런데 '왜' 청약 당첨은 꿈도 못 꾸다는 얘기가 나올까.

분양가 상한제 도입도 예고했다. 2014년 폐지 이후 5년 만이다. 고분양가를 잡

기사수첩
서지희 부동산부/jhsseo@

국토부, '왜?'라는 물음이 필요한 때

고, 집값도 안정화하겠다는 선의의 취지라며. 그런데 '왜' 시장은 반기지 않을까.

부동산 총대를 멘 국토부는 끊임없이 정책을 내놨다. 집값이 오를 때도, 집값이 내려갈 때도. 그러나 확대보다는 푸대접을, 신뢰보다는 불신에 가까운 반응을 마주했다. '왜' 그럴까.

혹자가 얘기하는 성과주의에 빠져서일

까. 서울 강남과 다주택자만 잡으면 집값은 잡힌다는 '강남논법'에 빠져서일까.

집에 대한 인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여기에 갈수록 잘게 세분되는 삶의 유형, 가 치관이 더해지면서 집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건 더 어려워졌다.

"정책을 비웃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래 못 간다는 식이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속상해요." 허탈함이 뻗 국토부 직원의 한숨은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차가운 시선이 느껴져도 부동산 정책의 최전선에 있는 국토부는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책 효과가 실제로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해야 한다. 시장의 외면이 돈 많은 이들의 오만이라고만 여기면 안 된다. 작년보다 3조4956억 원 늘어난 43조2191억 원의 예산이 적시적기에 쓰였다는 평가도 정책이 제 역할을 다 했을 때 받을 수 있다.

여우는 평평한 접시에 맛있는 음식을 내왔지만, 주둥이가 긴 두루미는 먹지 못했다. 부동산 정책이 시장과 엇박자를 내는 건 아닌지, 담벼락을 문이라고 내미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묻고, 또 검증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 이대로 괜찮겠조?

이슈&인물

日 반도체 규제 해법은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

“WTO 제소, 자칫 사태 장기화할 수도”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가 지속된다면 한국 반도체 업체들은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전기·정보공학부 교수)은 1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규제에 대해 우리나라가 겪을 수 있는 피해의 심각성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해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4일부터 강화했다. 규제 대상 목록에 오른 3개 소재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포토 레지스트 등이다.

단 한 개의 소재가 없더라도 생산 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일본의 규제는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 소장은 “옛날 영화를 보면 나사 하나가 없어 로봇이 작동하지 않는 장면이 등장한다”며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처지에 놓여 있다. 소재 수출 규제로 인해 반도체 전체 생산라인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정부 규제도 낮은 국산화율에 한 몫” = 우리나라는 그동안 반도체 소재를 해외에 많이 의존했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반도체 소재 국산화율은 약 50%에 불과하다. 이 소장은 “소재는 단기간에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소재를 직접 만들기도는 일본으로부터 수입해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규제 또한 소재 국산화율이 낮은데 영향을 끼쳤다고 이 소장은 답했다. 그는 “2012년 구미에서 발생한 불화수소 누출 사고 이후 관련 생산 공장을 건설할 때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포토 레지스트에 대한 수출 규제가 업체들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포토 레지스트는 반도체 웨이퍼에 회로를 인쇄하는 노광 공정에 사용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으로 포토 레지스트 전체 수입 중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91.9%에 달한다.

그는 “반도체 웨이퍼에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역할을 하는 에칭가스의 경우, 우리나라 중견업체들도 생산한다. 포토 레지스트는 이야기가 다르다”며 “포토 레지스트는 전적으로 일본에 의존하고 있어 다른 나라로부터 조달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기업에서도 포토 레지스트를 생산하고 있지만, 일본과 비교했을 때 기술 수준은 아직 초기 단계라는 게 이 소장의 진단이다.

◇ “한일 갈등- 해외 경쟁 업체들엔 호재” = 이 소장은 수출 규제로 인해 반도체 업체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했다.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은 10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품목은 포토 레지스트”라며 “전적으로 일본에 의존하고 있어 다른 나라로부터 조달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나사 하나 없어 로봇 멈추는 옛날 영화 한 장면 같은 상황

日 의존 91.9% 포토 레지스트 3개 품목 중 가장 큰 타격

소재 수출 규제 지속되면 반도체 제품 생산 못할 수도

소재 핵심기술, 결국은 사람 반도체 인력 양성 적극 나서야 기업·대학간 논의하고 있는 반도체계약학과도 한 방법

그는 “이번 사태는 해외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엔 호재로 작용한다”며 “규제가 장기화할 경우 세트업체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경쟁사인 미국의 마이크론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론은 글로벌 D램 및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회사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 소장은 “일본이 이번에 규제한 포토 레지스트는 EUV(극자외선)용”이라며 “삼성전자와 미세공정 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만의 TSMC가 반사이익을 얻는다”고 분석했다. EUV는 파장이 ArF(불화아르곤) 14분의 1 수준인 13.5나노에 불과해 미세공정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의 견제로 타격받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 전략이 반등할 수 있다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서 이 소장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다만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에 요청한 고객사들의 시스템 반도체

물량이 중국으로 갈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재 경쟁력 끌어올려야” = 일본이 규제를 발표한 이후 우리나라 정부는 사태를 수습하고자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WTO 제소는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또한 “관계부처 TF에서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WTO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소장은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겠지만, WTO 제소의 경우 소송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갈등이 지속된다면 기업이 입을 피해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일본의 규제를 계기로 우리나라 소재 산업 분야에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작정 포토 레지스트, 에칭가스를 개발하기보다는 정부가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파악해 소재 분야의 경쟁력을 어떻게 끌어올릴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또한 그동안 반도체 소재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면 소재 기술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도체 인력도 적극 양성해야 한다고 이 소장은 설명했다. 소재 핵심 기술은 결국 사람이 개발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반도체 인재가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대규모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기업과 대학들이 논의하고 있는 반도체 계약학과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시설

교역악화에 일본 쇼크, 신용등급 강등 경고

갈수록 악화하는 교역환경에 국내 간판기업들의 신용등급 강등 위험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 200대 기업 신용등급이 본격적인 하락국면에 진입했다고 경고했다. 특히 한·일 간 무역마찰이 성장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기업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S&P는 이와 함께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낮췄다. 연초 2.5%로 전망했으나 4월 2.4%로, 이번에 또 2.0%로 대폭 하향한 것이다.

S&P는 10일 내놓은 ‘높아진 신용 위험에 직면한 한국 기업들’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글로벌 수요 둔화와 무역분쟁 심화로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정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영업환경이 어려워지고, 생산과 투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데다, 노동시장이 취약해 소비악화로 이어지는 문제를 지적했다. 기업실적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자본투자와 주주환원 확대 등 공격적인 재무정책도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S&P는 올해 현대차그룹과 SK하이닉스, LG화학, SK텔레콤, KCC 등 주요 기업의 신용등급 전망을 낮춘 바 있다.

최근 무디스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기존의 Aa2(안정적)로 유지했지만, 일본의 수출제한으로 한국 경제 둔화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만간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배제하기 어렵다. 올해 성장률은 2.1%로 전망했다. S&P, 무

디스와 함께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하나인 피치의 성장률 전망치는 2.0%다.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의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글로벌 교역이 위축돼 한국이 받을 타격이 가장 클 것이라는 우려에, 일본의 통상보복은 앞선 데 덮친 격이다. 리스크가 커지면서 투자는행(IB)들이 잇따라 성장전망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모건스탠리가 기존의 2.2%에서 1.8%로 하향조정했고, 씨티와 골드만삭스는 2.1%, JP모건 2.2%, 노무라 1.8%, ING그룹은 1.5%로 내다봤다.

성장률 하락과 신용등급 강등이 가져올 후폭풍을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가면 지금처럼 재정을 펴부어 경기를 떠받치는 정책을 펼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진다. 재정건전성의 제약이 따르고, 그렇지 않아도 세수전망까지 나빠지고 있다. 기업의 경우 자본조달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조달비용도 급격히 올라간다. 무엇보다 투자 불확실성의 증폭으로 국내 자본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금의 대거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

은통 비판적 성장전망만 쏟아지는 데 뾰족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당장 급한 것은 최대 리스크인 일본의 수출규제 해결이다. 사태가 길어지면 수많은 공장이 멈춰서고, 나라 경제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비상한 위기다. 결국 외교적 해법 말고는 지금 달리 길이 없다.

한 킷



위험천만

작업자들이 고갈 모양의 표지판인 ‘킬러콘’ 하나를 경계에 두고 도로변에서 화단 정비 작업을 하고 있다. 빠르게 지나치는 차량을 뒤로하고, 안전모와 안전 조끼를 방패 삼아 분주하게 꽃을 심고 있다. 결과물은 아름답겠지만 그 과정은 ‘아슬아슬’. 작업자들의 안전이 우려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SAMSUNG

“심심한 건 내 취향 아님,
비스포크 냉장고로 누구보다 강렬하게”



BESPOKE

1도어+2도어

Satin Yellow +
Satin Coral

가구를 맞추듯
가전을 맞추다 **BESPOKE**

